

アジアの人々へ読んでもらいたい 『沖縄県産本50冊』

为亚洲读者力荐的
“50部冲绳县内出版书籍”

아시아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오кина와책 50권



編 著 東アジア出版人会議沖縄会議実行委員会
編 著 东亚出版业者会议冲绳会议执行委员会
편 저 동아시아출판인회의 오кина와회의실행위원회

アジアの人々へ読んでもらいたい『沖縄県産本50冊』

凡例

- 本書は東アジアの出版人へ向けて、沖縄県産本の中で読んでもらいたい書を、沖縄県産本編集者としての視点で選定した。
- 本書の選定に当たっては、武石和実・友利仁・宮城一春の実行委員3名で担当した。
- 本書は県産本の「沖縄戦」「歴史」「現代史」「基地問題」「芸能」「文化」「美術・工芸」「民俗」「民話」「自然」「料理」「地域」「空手」「文学」「写真集」分野から、バランスに配慮して選定した。
- 本書の選定に当たっては、書店や図書館などで、現在入手可能な書籍を選定した。
- 本書は、東アジア出版人会議沖縄実行委員に参加している版元の発行書籍を中心に選定を行った。
- 本書のブックレビューは、選定書籍の版元担当者が執筆し、名前を発行元のあとに記として掲載している。実行委員の版元以外の執筆は宮城一春が担当した。
- 本書の翻訳は、中国語を陳碩炫（中国福建師範大学閩台区域研究中心副研究員）、李源（中国延辺大学大学院修士課程二年生）、韓国語をイ・ソンウク（翻訳・通訳フリーランサー）が担当した。

为亚洲读者力荐的“50部冲绳县内出版书籍”

凡例

- 本书是基于冲绳县内出版编辑人员的角度，为东亚广大出版业者精心选定的冲绳县内出版书籍的内容简介。
- 本书所收书目的选定工作，由武石和实、友利仁、宫城一春三位负责执行。
- 本书所收书目是从“冲绳战”、“历史”、“现代史”、“基地问题”、“艺能”、“文化”、“美术工艺”、“民俗”、“民间故事传说”、“自然”、“料理”、“地域”、“空手道”、“文学”、“摄影集”等县内出版领域中，兼顾协调数量平衡而最终选定的。
- 本书选定的都是目前在书店或图书馆等处可以购买或借阅到的书籍。
- 本书选定的书目以参加东亚出版业者会议冲绳执行委员会的出版商所出版的书籍为主。
- 本书所收书目的内容简介，由所选书籍的出版社负责人执笔，并以注记形式附于出版社信息之后。执行委员以外的出版社的书目简介则由宫城一春负责撰写。
- 本书的翻译，汉语由陈硕炫（福建师范大学闽台区域研究中心副研究員）与李源（延辺大学在读硕士研究生）负责，韩语由李成旭（笔译口译工作者）完成。

아시아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오키나와책 50권

범례

- 본서는 동아시아의 출판인을 대상으로 추천하는 오키나와의 책을 편집자의 시점으로 선정한 것이다.
- 본서의 선정에 있어서, 타케이시 카즈미·토모리 히토시·미야기 카즈하루 위 실행위원 3인이 담당하였다.
- 본서는 오키나와책 중, 「오키나와전」 「역사」 「현대사」 「기지문제」 「예능」 「문화」 「미술 예능」 「민속」 「민화」 「자연」 「지역」 「공수」 「문학」 「사진집」 의 분야에서 균형 있게 배려하여 선정한 것이다.
- 본서는 동아시아출판인회의 오키나와실행위원에 참가하고 있는 발행처의 발행서적을 중심으로 선정한 것이다.
- 본서의 북리뷰는 선정서적의 발행처의 담당자가 집필하고, 이름을 발행원의 뒤에 기술하는 형식으로 게재하였다. 실행위원의 발행처 외의 집필은 미야기 카즈하루가 담당하였다.
- 본서의 번역은 중국어는 가, 일본어는 이성욱 (통번역 프리랜서) 이 담당하였다.

目 次

【日本語】

沖縄戦記 鉄の暴風	6	恋するしまうた 恨みのしまうた	18
絵本 ひめゆり	6	世界のなかの沖縄文化	19
沖縄の戦争遺跡	7	島の手仕事 一八重山染織紀行 一	19
奪われた物語—大兼久の戦争犠牲者たち	7	壺屋焼入門	20
教養講座 琉球・沖縄史	8	エイサーだいこでちむどんどん	20
沖縄人はどこから来たか 琉球=沖縄人の起源と成立	8	沖縄の伝統行事・芸能を歩く	21
沖縄歴史への視点	9	『泡盛の文化誌』 沖縄の酒をめぐる歴史と民俗	21
親子で学ぶ沖縄人の生き方 琉球・沖縄 歴史人物伝』	9	神々の古層 全十二巻	22
琉球弧叢書⑦『冊封使録からみた琉球』	10	入門 沖縄の薬草	22
琉球弧叢書⑨『島津氏の琉球侵略 —もう一つの慶長の役』	10	沖縄のわらべうた	23
琉球弧叢書⑩『アジアの海の古琉球 —東南アジア・朝鮮・中国』	11	大浦湾の生きものたち 一琉球弧・ 生物多様性の重要地点、沖縄島大浦湾—	23
琉球弧叢書⑬『博物学と書物の東アジア —薩摩・琉球と海域交流』	11	フィールドガイド 沖縄の生きものたち	24
琉球弧叢書⑰『歌三絃往来 —三絃音楽の伝播と上方芸能の形成』	12	琉球列島の自然講座	24
琉球王国海上交渉史研究	12	琉球列島のチョウたち	25
近世琉球中国交流史の研究 —居留地・組織体・海域	13	沖縄県の地理	25
「琉球処分」を問う	13	心を伝える 奄美の伝統料理	26
薩摩侵攻 400 年 未来への羅針盤	14	王都首里見て歩き ～御城と全 19 町ガイド&マップ	26
戦後をたどる 「アメリカ世」から「ヤマト世」へ	14	よみがえるドゥナン —写真が語る与那国の歴史—	27
沖縄の市場（マチグワー）文化誌	15	八重山の台湾人	27
データで読む沖縄の基地負担	15	石垣島で台湾を歩く—もうひとつの沖縄ガイド	28
「アメとムチ」の構図—普天間移設の内幕	16	琉球拳法 唐手 普及版（復刻 2006 年、初版大正 11 年）	28
砂上の同盟—米軍再編が明かすウソ	16	新編 沖縄の文学	29
沖縄の基地問題	17	こどもたちのオキナワ 1955 - 1965	29
基地の島 コンパクト事典	17	写真記録 沖縄戦後史 1945 - 1998	30
組踊の世界	18	辺野古 豊里友行写真集	30

【中文】

冲绳战记 铁血风暴	6	爱恨绵绵的岛歌	18
绘本 姬百合	6	世界上的冲绳文化	19
冲绳的战争遗迹	7	海岛工艺——八重山染织纪行	19
陨落的生命物语——大兼久战争的牺牲者	7	壶屋烧入门	20
教育讲座 琉球·冲绳史	8	令人心潮澎湃的太鼓舞	20
冲绳人的由来 琉球 = 冲绳人的起源与成立	8	冲绳的传统节日和艺能漫游	21
冲绳历史的视角	9	泡盛文化志——以冲绳酒为中心的历史和民俗	21
亲子一同学习冲绳人的生活方式 琉球· 冲绳 历史人物传记	9	神祇的历史古层 全十二卷	22
琉球弧丛书⑦册封使录中的琉球	10	入门 冲绳的药草	22
琉球弧丛书⑨岛津氏的琉球入侵 —另一个研究视野下的庆长之役	10	冲绳的童歌	23
琉球弧丛书⑩亚洲海域的古琉球 ——东南亚、朝鲜、中国	11	大浦湾的生物 琉球群岛·生物多样性的 重要地点 —冲绳岛大浦湾	23
琉球弧丛书⑬博物学与书籍的东亚 —萨摩·琉球与海域交流	11	野外指南 冲绳的生物	24
琉球弧丛书⑰歌三弦来往 —三弦音乐的传播与上方艺能的形成	12	琉球列岛的自然讲座	24
琉球王国海上交流史研究	12	琉球群岛的蝴蝶	25
近世琉球中国交流史的研究 —居留地·组织·海域	13	冲绳县的地理	25
质问“琉球处分”	13	传递心灵的奄美传统料理	26
萨摩入侵琉球 400 年 面向未来的指南针	14	游览王都首里城—首里城与 19 町的 旅游导览图	26
迈向战后 从‘美国时代’走向的‘大和时代’	14	复苏的与那国岛 照片讲述的与那国历史	27
冲绳的市场文化志	15	八重山岛上的台湾人	27
用数据解读冲绳的基地负担	15	走访石垣岛感受台湾 ——又一个冲绳旅游指南	28
“糖与鞭子”的构思—普天间移设的内幕	16	琉球拳法 唐手普及本 (再版 2006 年, 初版大正 11 年)	28
沙上同盟—美军重组揭开的谎言	16	新编 冲绳文学	29
冲绳的基地问题	17	孩子们成长的冲绳社会 1955-1965	29
基地之岛 小百科事典	17	摄影集 冲绳战后史 1945-1998	30
组舞的世界	18	边野古 丰里友行照片集	30

【한국】

오кина와전기 철의 폭풍	6	사랑의 시마우타 (섬노래)	
그림책 히메유리	6	원한의 시마우타 (섬노래)	18
오кина와의 전쟁 유적	7	세계속의 오кина와 문화	19
빼앗긴 이야기—오가네쿠의 전쟁 희생자들	7	섬의 수예 - 야에야마 염색과 직조 기행 -	19
교양강좌 류큐·오кина와사	8	향아리굽기 입문	20
오кина와인은 어디에서 왔는가 류큐 = 오кина와인의 기원과 성립	8	Eisa Daiko de Chimudondon	20
오кина와 역사에대한 시점	9	오кина와의 전통행사·예능을 걷는다	21
부모와 자식이 함께 배우는 오кина와인의 삶 류큐· 오кина와 역사인물전	9	아와모리의 문화지오кина와의 술을 둘러싼 역사와 민속	21
류큐 호 총서⑦ 책봉사록冊封使録에서 본 류큐	10	신들의 고층古層 전 12 권	22
류큐 호 총서⑨ 시마즈의 류큐 침략 - 또 하나의 임진왜란	10	입문 오кина와의 약초	22
류큐 호 총서⑩ 아시아의 바다 옛 류큐 - 동남아시아·조선·중국	11	오кина와의 와라베우타	23
류큐 호 총서⑬ 박물관과 서적의 동아시아 - 사쓰마·류큐와 해역교류	11	오우라만의 생물들 - 류큐 호·생물다양성의 중요지점, 오кина와섬 오우라만 -	23
류큐 호 총서⑮ 가삼현 왕래 - 삼현음악의 전파와 상방예능의 형성	12	필드가이드 오кина와의 생물들	24
류큐왕국 해상교섭사 연구	12	류큐열도의 자연강좌	24
근세 류큐 중국 교류사의 연구 - 거류지·조직체·해역	13	류큐 열도의 나비들	25
류큐처분을 묻는다	13	오кина와현의 지리	25
사쓰마 침공 400년 미래로의 나침반	14	마음을 전하는 아마미의 전통요리	26
전후의 길을 걷다 - 미국에서 야마토로	14	왕도슈리 산책 ~성과 전 19 마을 가이드 & 맵	26
오кина와의 시장 (Machigwa) 문화지	15	되살아나는 두난 —사진이 이야기하는 요나쿠니의 역사—	27
데이터로 읽는 오кина와의 기지부담	15	야에야마의 대만인	27
당근과 채찍의 구도—후텐마 이설의 내막	16	이시가키섬에서 대만을 걷다 — 또 하나의 오кина와 가이드	28
모래 위의 동맹—미군재편이 밝히는 거짓말	16	류큐권법 가라데보급판 (복각 2006년, 초판 다이쇼 11년)	28
오кина와의 기지문제	17	신편 오кина와의 문학	29
기지의 섬 콤팩트사진	17	어린이들의 오кина와 1955-1965	29
쿠미오도리의 세계	18	사진기록 오кина와 전후사 1945-1998	30
		헤노코 도요사토 도모유키 사진집	30



『沖繩戦記 鉄の暴風』

沖繩タイムス社 編著
発行：沖繩タイムス社（友利仁：Hitoshi Tomori 記）

《冲绳战记 铁血风暴》

冲绳时报社 编著
发行：冲绳时报社（友利仁：Hitoshi Tomori注记）

『오키나와전기 철의 폭풍』

오키나와 타임즈사 편저
발행:오키나와 타임즈사（도모리 히토시 記）

「戦争の醜さの極致」だと言われた沖繩戦。その沖繩戦の実相を記録した、沖繩戦記の原点といわれる書。軍の作戦上の動きではなく、住民の動きと被害に焦点を当て、住民の視点から執筆されたことは当時としては画期的なこととされた。初版は1950年、沖繩県産本最大のロングセラーとして今なお読み継がれ、「鉄の暴風」という言葉は沖繩戦を語る際の枕詞にもなっており、戦後沖繩人の意識構造にも大きな影響を与えた。20年・30年・50年後の「あとがき」も収録。
(B6判 / 459ページ / 本体価格 1,458円)

冲绳岛战役被认为是“战争罪恶的极致体现”。本书记录了冲绳战的种种真相,被称为是冲绳战记的起点。全书内容一改以往以军事作战行动为中心的写作方式,转而聚焦民众的活动和受害状况,从民众的角度执笔,在当时具有划时代的意义。本书1950年初版首发,被誉为是冲绳县内出版销量最大的长期畅销书,至今仍广为传读。“铁血风暴”一词已成为谈及冲绳岛战役的关键词,并对战后冲绳人的意识构造产生重大影响。书中亦收录了20年・30年・50年后的“后记”。
(B6 纸型 / 459 页 / 税前价格 1,458 日元)

전쟁의 흥측함의 극치라 일컬어진 것이 바로 오키나와전이다. 그 오키나와전의 실상을 기록한 오키나와전기의 원점이라 할 수 있는 책이다. 군의 작전상의 움직임이 아니라 주민의 움직임과 피해에 초점을 맞추어 주민의 시점에서 집필한 것으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초판은 1950년에 발행되었고, 오키나와 관련 책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팔린 책이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고, ‘철의 폭풍’이란 단어는 오키나와전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될 정도로 전후 오키나와인의 의식 구조에도 거대한 영향을 끼쳤다. 20년, 30년, 50년 후의 후기도 수록되었다.
(B6 판 / 459 페이지 / 본서가격 1,458 엔)

『絵本 ひめゆり』

文：ひめゆり平和祈念資料館・絵：三田圭介
発行：公益財団法人沖繩県女師・一高女Himeyuri平和祈念財団（宮城一春: Kazuharu Miyagi 記）



《絵本 姫百合》

文：姫百合和平祈念資料館、图：三田圭介（Keisuke Mita）
发行：公益財団法人沖繩県女子师范学校、沖繩県立第一女子高中、姫百合和平祈念財団（宮城一春：Kazuharu Miyagi注记）

『그림책 히메유리』

문장: 히메유리 평화기념 자료관 그림: 미타 게이스케
발행: 공익재단법인 오키나와현 여사·일고녀 히메유리 평화기념 재단 (미야기 카즈하루 記)

沖繩戦には多くの学生たちが戦場へと取り出された。本書は沖繩女子师范学校女子部と沖繩県立第一高等女学校の生徒によって構成されたひめゆり学徒の実話である。本書は、当たり前青春を謳歌し、明るい学校生活を過ごしていた十代の女子学生たちが、戦争によって運命を変えられていく姿が描かれている。学校生活と悲惨で残酷な戦争シーンがそれぞれ異なる筆致で描かれる内容は、戦争を二度と起こ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学徒たちの願いが込められている。
(A4判横 / 42ページ / 本体価格 2,000円)

冲绳岛战役期间,许多学生被卷入战场。本书讲述的是由冲绳女子师范学校女子部与冲绳县立第一高等女子学校的学生构成的姬百合学生队的真实故事。本书在讴歌青春的同时,描述了本应度过美好校园生活的十几岁的女学生们因战争而被迫改变命运的故事。作者用不同的笔风对比描绘出了校园生活和悲惨残酷的战争场面,饱含并传达学生们祈求战争不再发生的心愿。
(A4 纸型 横向 / 42 页 / 税前价格 2,000 日元)

오키나와전에는 많은 학생들이 전쟁에 투입되었다. 본서는 오키나와여자사범학교 여학생들과 오키나와현 제1여자고등학교 학생들에 의해서 구성되었다. ‘히메유리’란 학생의 실화이다. 본서는 청춘을 노래하고 밝은 학교생활을 보내고 있던 10대 여학생들이 전쟁에 의해서 운명이 뒤바뀌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학교생활과 비참하며 잔혹한 전쟁의 모습이 각각의 다른 터치로 그려진 내용에서는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학생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다.
(A4/42 페이지 / 본서가격 2,000 엔)



『沖繩の戦争遺跡』

沖縄県平和祈念資料館 編
発行：合資会社 沖縄時事出版（上原一真：Kazuma Uehara 記）

《冲绳的战争遗迹》

冲绳县和平祈念资料馆 编辑
发行：冲绳时事出版合资会社（上原一真：Kazuma Uehara 注记）

『오키나와의 전쟁 유적』

오키나와현 평화기념 자료관 편저
발행: 합자 회사 오키나와시사 출판 (우에하라 가즈마 記)

中国や韓国・台湾など、東アジアの国々から多くの観光客が訪れる沖縄県平和祈念資料館。そこには沖縄戦の実態を展示し、戦争の悲惨さや、二度と起こしてはいけない人間の愚かな行為を今に伝えている。本書は現在も残る戦争遺跡に加え、そこから出土した遺物や、沖縄戦当時の写真を多数掲載。また、市町村別の戦跡マップや現地までの案内図、イラストマップなど、オールカラーで掲載され、小学生でも読み解きやすい。沖縄県の平和学習にかかせない一冊となっている。
(A4判変型 / 74ページ / 本体価格 1,143円)

冲绳县和平祈念资料馆，来自中国、韩国、台湾等东亚国家和地区的众多游客纷沓而至。馆内展示了冲绳战役的实况、向世人传达了战争的惨状、以及绝不容许再次发生的人类的愚蠢行为。书中大量刊载了遗留至今的战争遗迹和从遗迹中出土的遗物，以及冲绳战役时拍摄的照片。此外，还以全彩图版的方式刊载了各市町村行政单位的战迹地图，甚至当地的向导图、地形图等，即便小学生也可轻松阅读。是一部了解和学习冲绳不可或缺的书。 (美国标准信笺纸型 / 74页 / 税前价格 1,143日元)

오키나와현 평화자료기념관은 한국과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의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그곳에는 오키나와전의 실태를 전시하고 전쟁의 비참함과 두 번 다시 일으켜서는 안 되는 인간의 어리석은 행동을 알려주고 있다. 본서는 지금도 남아 있는 전쟁유적과 더불어, 그곳에서 출토한 유물과 오키나와전 당시의 사진을 다수 게재하고 있다. 또한 마을 별로 전적戰跡지도와 현지 안내도, 일러스트지도 등을 올 컬러로 게재하여 초등학교도 쉽게 읽을 수 있다. 오키나와현의 평화학습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책이라 할 수 있다.
(A4 판 변형 / 74 페이지 / 본서가격 1,143엔)



『奪われた物語—大兼久の戦争犠牲者たち』

大城貞俊 (Sadatoshi Ooshiro) 著
発行：沖縄タイムス社 (友利仁：Hitoshi Tomori 記)

《陨落的生命物语—大兼久战争的牺牲者》

大城貞俊 (Sadatoshi Ooshiro) 著
发行：冲绳时报社 (友利仁：Hitoshi Tomori 注记)

『빼앗긴 이야기—오가네쿠의 전쟁 희생자들』

오시로 사다토시 저
발행: 오키나와 타임즈사 (도모리 히토시 記)

小説家・詩人としての顔を持つ大学教授が、退官を機に故郷・大宜味村字大兼久の戦争犠牲者の聞き書きを始める。戦死者 111人を記した名簿をたよりに、遺族や友人たちに、その人たちがどのように生き、どのような死に方をしたのかを語ってもらう。人生という「物語」を「奪われた」戦死者を思い、人生を改変された生者の苦しみを問近にすることで逡巡する著者の心の動きも記した新しい戦争聞き書き集。著者の誠実さと文章の流麗さが読む者の胸を打つ。
(四六判 / 329ページ / 本体価格 1,500円)

一位作为小说家和诗人而颇为人知的大学教授，退休后回到故乡的大宜味村字大兼久，开始着手进行该地区战争牺牲者的口述调查记录。以111位战争牺牲者的名单为线索，从其遗族以及朋友处采访这些牺牲者当时是如何生存、如何死亡。作者在追思悼念那些“被剥夺”了人生“故事”的战争牺牲者，也深刻感受到因亲朋好友的死去而命运颠沛的遗属们的痛苦。这部新的战争记录集也将作者的踌躇犹豫的心理活动展现得淋漓尽致。作者情感真实，文笔流畅，打动了读者的心灵。
(H188*W130mm 纸型 / 329页 / 税前价格 1,500日元)

소설가와 시인의 두 얼굴을 가진 대학교수가 은퇴를 계기로 고향인 오기미손지오가네쿠의 전쟁 희생자들을 인터뷰하였다. 전사자 111명이 명시된 명부를 토대로, 유족이나 친구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담았다. 인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빼앗긴 전사자를 생각하며 인생이 360도로 변해버린 살아남은자들의 고통을 마주함으로써 준수逡巡하는 저자의 마음의 변화를 기술한 새로운 전쟁인터뷰집이다. 저자의 성실함과 문장의 수려함이 독자의 가슴을 흔들 것이다.
(46 판 / 329 페이지 / 본서가격 1,500엔)



『教養講座 琉球・沖縄史』

新城俊昭 (Toshiaki Arashiro) 著
発行：編集工房 東洋企画 (新城俊昭 記)

《教育講座 琉球・沖縄史》

新城俊昭 (Toshiaki Arashiro) 著
発行：編輯工作室 東洋企画 (新城俊昭 注記)

『교양강좌 류큐 · 오키나와사』

아라시로 토시아키 저
발행：편집 공방동양기획 (아라시로 토시아키 記)

「琉球史は日本史にとって外国史の研究である」といわれるように、琉球・沖縄は単純に日本の一地域として位置づけることはできない。それどころか、琉球・沖縄史の視点を日本史に組み込むことによって、従来の日本史像を打ち崩す、あらたな歴史の枠組みづくりを担うことさえできるのである。琉球・沖縄の歴史から先人の経験を学ぶとともに、日本、アジア、そして世界の歴史をみる目を養っていければと思います、本書をまとめた。
(B5判 / 437 ページ / 本体価格 2,000 円)

诚如所言，“琉球史相对于日本史而言，可谓外国史的研究范畴”，因此不能单纯的将琉球・沖縄归之于日本的某一地域来看待。非但如此，如果将琉球・沖縄史的研究视角编入日本史，很有可能推翻以往对日本史的理解，甚至有可能重新构筑新的历史框架。作者希望读者可以从琉球・沖縄的历史中，学习和借鉴先人的经验，培养审视日本、亚洲乃至全世界历史的眼光。
(B5 纸型 / 437 页 / 税前价格 2,000 日元)

‘류큐사는 일본사에 있어서 외국역사를 연구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류큐, 오키나와는 단순히 일본의 한 지역으로만 볼 수는 없다. 그 뿐만 아니라 류큐, 오키나와의 시점을 일본사에 편입함으로써 기존의 일본사상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역사의 틀을 짜는 것조차도 가능하다. 류큐, 오키나와의 역사로부터 조상의 경험을 배우고 동시에 일본, 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서를 기술하였다.
(B5 판 / 437 페이지 / 본서가격 2,000 엔)



『沖縄人はどこから来たか』 琉球=沖縄人の起源と成立

安里進 (Susumu Asato) · 土肥直美 (Naomi Doi) 著
発行：ポードーインク (池宮紀子：Noriko Ikemiya 記)

《冲縄人的由来》 琉球=冲縄人的起源与成立

安里进 (Susumu Asato) · 土肥直美 (Naomi Doi) 著
発行：Borderink (池宮紀子：Noriko Ikemiya 注記)

『오키나와인은 어디에서 왔는가』 류큐 = 오키나와인의 기원과 성립

아사토 스스무 · 도히 나ومی 저
발행：보더 잉크 (이케미야 노리코 記)

現日本人やアイヌ、港川人との関係を探り、さらに沖縄のグスク時代 (11世紀後半) に何が起こったかなどについて、考古学と人類学の専門家による対談を掲載。沖縄で発見された1万8000年前とされる港川人は中国南部である説が有力であるが、実際のところどうなのか、その後港川人が現在の沖縄人になったのか。先島 (宮古・八重山諸島) ではどうなのかなど多くのミッシングリンクを抱える「沖縄人起源論」に迫る。
(新書判 / 160 ページ / 本体価格 1,000 円)

本书记载了考古学和人类学专家关于探究现代日本人与阿伊努族、港川人之间的关系以及冲绳Gusuku时代 (11世纪后半期) 发展变化的对话。在冲绳被发现的距今1万8000年的港川人来自于中国南部之说尽管存在，但事实又是如何呢？之后港川人是否成了现代冲绳人的祖先呢？在先岛 (宫古・八重山列岛) 又是何种状况呢？本书将聚焦疑云重重的“冲绳人起源论”。
(103*182mm 纸型 / 160 页 / 税前价格 1,000 日元)

지금의 일본인과 아이누, 미나토가와인의 관계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오키나와의 구스크 시대 (11세기 후반) 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고고학과 인류학의 전문가에 의한 대담을 게재하였다. 오키나와에서 발견된 1만8000년전이라 여겨지는 미나토가와인은 중국남부라는 설이 유력하지만, 실제로는 어떤지, 그 후에 미나토가와인이 현재의 오키나와인이 된 것인가 등, 사키시마先島 (미야코, 야에야마제도) 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결고리를 ‘오키나와인기원론’ 을 통해서 추적한다.
(신서판 / 160 페이지 / 본서가격 1,000 엔)



『沖縄歴史への視点』

高良倉吉 (Kurayoshi Takara) 著
発行：沖縄タイムス社 (友利仁：Hitoshi Tomori 記)

《冲绳历史的视角》

高良倉吉 (Kurayoshi Takara) 著
発行：冲绳时报社 (友利仁：Hitoshi Tomori 注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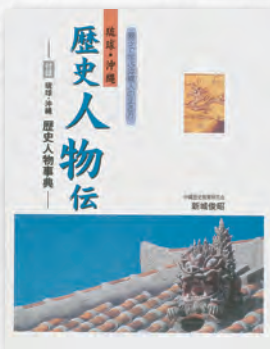
『오키나와 역사에 대한 시점』

다카라 구라요시 저
발행: 오키나와 타임즈사 (도모리 히토시 記)

沖縄研究のための必読書が揃う〈タイムス選書〉シリーズの第13弾として1981年刊行。前年に名著『琉球の時代』を著していた著者は当時34歳。主に沖縄県内の新聞・雑誌に発表した論考をまとめたのが本書で、著者初の沖縄県産本である。著者は本書について「沖縄歴史の研究を一生の仕事にしよう」と決心し、無我夢中で活動してきた私の記念すべき道標です」と語ったという。「歴史論」「伊波普猷論」「人物雑考」「紀行・雑感」の4部構成。(四六判／263ページ／本体価格1,600円・品切れ)

本书作为冲绳研究必读系列书籍(冲绳时报社精选书籍)的第13册,于1981年出版发行。作者当时年仅34岁,且在前一年出版了名著《琉球的时代》。本书主要收录了作者刊登发表于冲绳县内相关报刊杂志上的论文,是作者在冲绳县内出版的首部著作。据说著者在谈及本书时曾称:“这本书的出版,促使我下定决心将冲绳历史研究当作我一生的事业,也是纪念我不懈研究的里程碑”。本书由“历史论”、“伊波普猷论”、“人物杂考”,“游记·随感”4个部分组成。(H188*W130mm 纸型 / 263 页 / 税前价格 1,600 日元・售罄)

오키나와연구를 위한 필독서가 다루는 ‘타임즈 선서選書’ 시리즈 제 13탄으로서 1981년에 발행되었다. 그 지난해에 명저 ‘류큐의 시대’를 저술한 저자는 당시에 34살이었다. 주로 오키나와현내의 신문, 잡지가 발표한 논고를 모은 것이 본서이며, 저자의 첫 오키나와에 대한 책이다. 저자는 본서에 관해서 ‘오키나와역사의 연구를 평생의 업으로 삼겠다 결심하고 무아지경이 되어 활동해 온 저의 길잡이 같은 기념작입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역사론, 이하후유론伊波普猷論, 인물잡고人物雜考, 기행과 감상, 이렇게 4부로 구성되었다. (사륙판 / 263 페이지 / 본서가격 1,600 엔・품절)



『親子で学ぶ沖縄人の生き方 琉球・沖縄 歴史人物伝』

新城俊昭 (Toshiaki Arashiro) 編著
発行：合資会社 沖縄時事出版 (高江洲靖：Yasushi Takaesu 記)

《亲子一同学习冲绳人的生活方式 琉球・冲绳 历史人物传记》

新城俊昭 (Toshiaki Arashiro) 编著
発行：冲绳时事出版合资会社 (高江洲靖：Yasushi Takaesu 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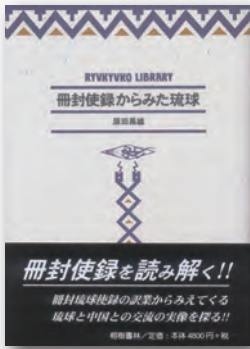
『부모와 자식이 함께 배우는 오키나와인의 삶 류큐・오키나와 역사인물전』

발행: 아라시로 토시아키 편저

歴史を創り上げるのは人間である。本書は、琉球歴史の分岐点となった琉球処分、沖縄戦、戦後、日本復帰運動などに関連して、それぞれの時代に活躍した人物を取り上げた。琉球の歴史に大きな足跡を残した政治家や、学者・研究者・教育・芸能など幅広い分野から53人をとりあげ彼らの人物像や功績を紹介。次世代を担う若者だけでなく、親世代も共に、本書で紹介した人物を通し、「ウチナンチュの生き方を学ぶ」ことのできる一冊である。(B5判変形／232ページ／本体価格1,429円)

历史是人类所创。本书选取了活跃于琉球历史分水岭的琉球处分时期、冲绳战期间、战后以及复归日本运动时期的一些重要人物。全书介绍了53位人物的人物形象及其功绩,这些人都是在琉球历史上大放异彩的政治家以及从学者、研究者、教育、文艺界等广泛领域中精选出的杰出人物。无论是将要担当重任的新一代年轻人,还是老一代的父母前辈,都可以通过本书所介绍的人物,“学习Uchinaanchu(冲绳人)的生活方式”。(230*182 纸型 / 232 页 / 税前价格 1,429 日元)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은 인간이다. 본서는 류큐역사의 분기점이된 류큐 처분, 오키나와전, 전후, 일본복귀운동 등에 관련하여 각각의 시대에 활약한 인물을 조명하였다. 류큐의 역사에 거대한 발자국을 남긴 정치가와 학자, 연구자, 교육, 예능 등 폭넓은 분야에서 53인을 지목하여 그들의 인물상과 공적을 소개한다. 다음 세대를 짊어질 젊은이뿐만 아니라, 신세대도 함께 본서에서 소개한 인물을 통하여 ‘우치난츄 (오키나와사람)’의 삶을 이 한 권으로 배울 수 있다. 발행: 합자회사 오키나와시사출판 (야스시 타카에스 記) (B5 판변형 / 232 페이지 / 본서가격 1,429 엔)



琉球弧叢書⑦『冊封使録からみた琉球』

原田禹雄 (Nobuo Harada) 著
発行：榕樹 (Yojyu) 書林 (武石和実：Kazumi Takeish 記)

琉球弧丛书⑦《册封使录中的琉球》

原田禹雄 (Nobuo Harada) 著
发行：榕树 (Yojyu) 书林 (武石和实：Kazumi Takeish 注记)

류큐 호 총서⑦『책봉사록册封使録에서 본 류큐』

노부오 하라다 저
발행: 묘목서림 (다케이시 가즈미 記)

冊封琉球使録の訳注は様々な文献、なかでも中国の基本史料や「球陽」等の琉球王府史料等々と照らし合わせていく地道で根気のいる作業であるが、その仕事の中で気づいた琉球史の様々な事象を取り上げて考察し、琉球史のキーワードの謎を追究した「冊封使録」入門の書である。取り上げられた項目は22項目、琉球史のなかでごく当たり前のこととされたことが、いかに多くの問題を含んでいるのかが提示されている。

(A5判 / 238 ページ / 本体価格 4,800 円)

冊封琉球使録の译注是一项需结合参照各种文献，尤其是中国的基础史料以及“球阳”等琉球王府的史料，极其考验人的严谨和耐心。作者选取了在译注过程中发现的各种琉球史现象，并加以考察。可谓是一部研究琉球史关键词之谜的“册封使録”的入门书籍。书中所列的22个条目，在琉球史中被认为是极其理所当然之事，但本书却指出了其尚存在许多疑问函待解决。

(A5 纸型 / 238 页 / 税前价格 4,800 日元)

책봉류큐사록의 역주는 다양한 문헌, 그 중에서도 중국의 기본사료인 ‘구양球陽’ 등의 류큐왕부사료 등과 함께 대조연구 해야 할 끈기있는 필요한 작업이다. 그 작업 중에서 깨달은 류큐사의 여러가지 사상을 지목하여 고찰하고, 류큐사 키워드의 미스테리를 추구한 ‘책봉사록册封使録’의 입문서이다. 거론된 항목은 총 22항목이며, 류큐사 안에서 지극히 당연시 되었던 것과, 많은 문제를 담고 있는 것들을 제시한다.

(A5 판 / 238 페이지 / 본서가격 4,800 엔)



琉球弧叢書⑩『島津氏の琉球侵略—もう一つの慶長の役』

上原兼善 (Kenzen Uehara) 著
発行：榕樹 (Yojyu) 書林 (武石和実：Kazumi Takeish 記)

琉球弧丛书⑩《岛津氏琉球入侵—另一个研究视野下的庆长之役》

上原兼善 (Kenzen Uehara) 著
发行：榕树 (Yojyu) 书林 (武石和实：Kazumi Takeish 注记)

류큐 호 총서⑩『시마즈의 류큐 침략 - 또 하나의 임진왜란』

발행: 우에하라 겐젠 저

朝鮮・中国・日本という東アジアの緊迫した政治状況のもとで1609年3月初め、3000名の島津軍は奄美の島々を攻略し、更に沖縄本島を攻撃し首里城を陥落させた。この侵略については正面切った研究があまりなされてこなかったが、著者は残された数少ない古文書等を綿密に分析し、その要因と背景、その過程を明らかにし、その結果をもたらされたものが何であったかを追求した、島津侵略400年記念出版。

(A5判 / 274 ページ / 本体価格 3,800 円)

在朝鲜、中国、日本东亚国际形势严峻的背景下，1609年3月初，3000名岛津军在攻占了奄美诸岛后，又继续挥军南下冲绳本岛，攻陷了首里城。对于本次侵略，鲜有学者对其进行正面、直接的研究，作者利用至今保存的为数不多的古文书资料进行了绵密细致的分析，阐明了其主要原因、背景及其过程，探究了侵略战争带来的后果。是一部纪念岛津入侵琉球400周年的出版书籍。

(A5 纸型 / 274 页 / 税前价格 3,800 日元)

조선, 중국, 일본이라 하는 동아시아의 긴박한 정치정황을 근거로 1909년 3월 초에 3천명의 시미즈군은 아미미奄美의 섬들을 공략하고, 더 나아가 오키나와본토를 공격하여 슈리성을 함락시켰다. 이 침략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연구가 별로 진행되지 않았으나, 저자는 얼마 없는 고문서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 원인과 배경, 그 과정을 명확하게 밝혔으며, 그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구한 시마즈침략 400주년을 기념한 출판물이다.

발행: 용수서림 (다케이시 가즈미 記)
(A5 판 / 274 페이지 / 본서가격 3,800 엔)



琉球弧叢書② 『アジアの海の古琉球—東南アジア・朝鮮・中国』

内田晶子 (Akiko Uchida) · 高瀬恭子 (Kyoko Takase) · 池谷望子 (Machiko Ikeya) 著
 発行：榕樹 (Yoju) 書林 (武石和実：Kazumi Takeish 記)

琉球弧丛书② 《亚洲海域的古琉球——东南亚、朝鲜、中国》

内田晶子 (Akiko Uchida) · 高瀬恭子 (Kyoko Takase) · 池谷望子 (Machiko Ikeya) 著
 発行：榕樹 (Yoju) 書林 (武石和実：Kazumi Takeish 注記)

류큐 호 총서② 『아시아의 바다 옛 류큐-동남아시아 · 조선 · 중국』

우치다 아키코 · 다카세 교코 · 이케야 마치코 저
 발행: 응수서림 (다케이시 가즈미 記)

編著者の三人は、長く『歴代宝案』の校訂、訳注の事業に関わり、又『明実録琉球史料』『朝鮮王朝実録琉球史料集成』の編纂を担ってきた。その様な中から古琉球期の対外交渉がどの様なものであったのかを具体的な事例をもとに考察し、いわゆる「琉球の大航海時代」の実像に迫った知的冒険の書。東南アジアについては内田晶子、朝鮮は高瀬恭子、中国は池谷望子が担当し、古琉球史の謎に挑む。

(A5判 / 310 ページ / 本体価格 4,800 円)

三位编著者长期参与《历代宝案》的校订和译注工作外，还主持了《明实録琉球史料》、《朝鮮王朝实録琉球史料集成》的编纂工作。本书以具体事例为基础，对古琉球时期的外交状况进行了考察，是一部揭露“琉球的大航海时代”真相、极富理性冒险的书籍。书中东南亚部分由内田晶子负责编著，朝鲜部分由高瀬恭子负责编著，中国部分则由池谷望子负责编著，共同寻求古琉球历史之谜。

(A5 紙型 / 310 頁 / 税前价格 4,800 日元)

저자 3인은 오랫동안 ‘역대보안歴代宝案’의 개정과 역주 작업에 관련하여, 또한 ‘명실록류큐사료’, ‘조선왕조실록류큐사료집성’의 편찬을 담당했다. 그러한 작업 속에서 옛 류큐왕조의 대외교섭이 어떠한 형태의 것이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고찰하고, 이른바 ‘류큐의 대해항시대’의 실상을 담은 지적모험서이다. 동남아시아에 관해서는 우치다 아키코가, 조선은 다카세 교코가, 중국은 이케야 마치코가 담당하여 옛 류큐사의 미스터리를 풀어보고자 한다.

(A5 판 / 310 페이지 / 본서가격 4,800 엔)



琉球弧叢書③ 『博物学と書物の東アジア—薩摩・琉球と海域交流』

高津 孝 (Takashi Takatsu) 著
 発行：榕樹 (Yoju) 書林 (武石和実：Kazumi Takeish 記)

琉球弧丛书③ 《博物学与书籍的东亚——萨摩·琉球与海域交流》

高津 孝 (Takashi Takatsu) 著
 发行：榕樹 (Yoju) 書林 (武石和实：Kazumi Takeish 注記)

류큐 호 총서③ 『박물관과 서적의 동아시아-사쓰마 · 류큐와 해역교류』

다카쓰 다카시 저
 발행: 응수서림 (다케이시 가즈미 記)

『質問本草』や『琉球産物誌』といった薩摩による博物学の書物、あるいは『論語』や『六諭衍義(りくゆえんぎ)』といったいわゆる琉球版といわれるものが、薩摩と琉球、そして中国という東アジア海域の広がりの中でどの様にして成立していったのかを明らかにし、その関係性を文化史的側面から解明せんとした労作。薩摩博物学の育成に果した三国の知的ネットワークの役割や薩摩及び琉球王国内の独自の出版文化の形成等の実像が見えてくる。

(A5判 / 296 ページ / 本体価格 4,800 円)

本书阐明了《质问本草》、《琉球物产志》等萨摩的博物学书籍，以及所谓琉球版的《论语》、《六諭衍义》等书籍如何在萨摩、琉球、中国这一东亚海域上实现交流，是一部从文化史的侧面解析其关联性的精心力作。书中论述了三国间的知识网络对萨摩博物学形成过程中所起到的作用，还原了萨摩以及琉球王国内形成的独立出版文化的真实过程。

(A5 紙型 / 296 頁 / 税前价格 4,800 日元)

‘질문본초質問本草’와 ‘류큐산물지琉球産物誌’ 등과 같은 박물관 서적, 혹은 논어의 류큐판이라 불리우는 리큐유엔기六諭衍義가 사쓰마와 류큐, 그리고 중국이라 하는 동아시아 해역에 널리 퍼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성립되었는지를 밝히고, 그 관계성을 문화사적 측면에서 분석하려 한 역작이다. 사쓰마박물관의 육성에 기여한 삼국의 지적 네트워크의 역할과 사쓰마 및 류큐왕국의 독자적인 출판 문화의 형성 등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A5 판 / 296 페이지 / 본서가격 4,800 엔)



琉球弧叢書②『歌三絃往来—三絃音楽の伝播と上方芸能の形成』

小島瓔禮 (Yoshiyuki Kojima) 著
発行：榕樹 (Yoju) 書林 (武石和実：Kazumi Takeish 記)

琉球弧丛书②《歌三弦来往—三弦音乐的传播与上方艺能的形成》

小島瓔礼 (Yoshiyuki Kojima) 著
发行：榕树 (Yoju) 书林 (武石和实：Kazumi Takeish 注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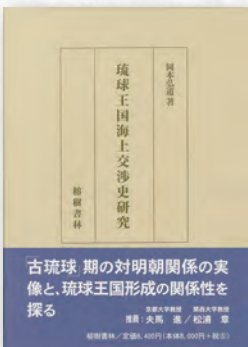
류큐 호 총서②『가삼현 왕래 - 삼현음악의 전파와 상방예능의 형성』

고지마 요시유키 저
발행: 용수서림 (다케이시 가즈미 記)

三線が中国から琉球へいつ頃伝来し、更に大和へと伝わっていったのかは、はっきりしてはいない。著者は文字資料のみならず、日本の伝統芸能の中に残る琉歌や琉球芸能の影響・痕跡や様々な伝承等を整理・分析し、中国・琉球・大和を貫く「三絃の道」を浮かび上がらせる。沖縄芸能史のみならず大和の芸能史にも大きな問いを發した著者畢生の書である。
(A5 判 / 226 ページ / 本体価格 3,800 円)

三弦何时由中国传入琉球、又于何时传入日本，尚不明确。作者在收集相关文字资料的同时，还对日本传统艺能中受自于琉歌以及琉球艺能的影响、痕迹以及各种传承加以整理和分析，呈现了贯通中国·琉球·大和的“三弦之道”。本书倾注了作者毕生的研究精力，不仅对冲绳艺能史，也对日本艺能史提出了疑问。
(A5 纸型 / 226 页 / 税前价格 3,800 日元)

샤미센이 중국에서 류큐로 건너와 야마토로 전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저자는 문학자료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통예능 안에 남아 있는 유가琉歌와 류큐예능의 영향, 흔적과 다양한 전승 등을 정리, 분석하여 중국, 류큐, 야마토를 관찰하는 ‘샤미센의 길’ 을 연상시키게 한다. 오키나와예능사 뿐만 아니라 야마토의 예능사에도 거대한 물음을 던진 저자 필생의 역작이다.
(A5 판 / 226 페이지 / 본서가격 3,800 엔)



『琉球王国海上交渉史研究』

岡本弘道 (Hiromichi Okamoto) 著
発行：榕樹 (Yoju) 書林 (武石和実：Kazumi Takeish 記)

《琉球王国海上交流史研究》

岡本弘道 (Hiromichi Okamoto) 著
发行：榕树 (Yoju) 书林 (武石和实：Kazumi Takeish 注记)

『류큐왕국 해상교섭사 연구』

오카모토 히로미치 저
발행: 용수서림 (다케이시 가즈미 記)

古琉球と明朝中国との関係を、明の対外政策、勘合貿易、琉球官生の実体、マラッカとの比較、琉球の朝貢貿易等を通して解明し、海上交易を中心とした新興通商拠点国家としての琉球王国の形成過程にそれらがどのような役割を果たし、影響を与えたのかを解明した。著者は明との関係を抜きに琉球王国の形成はなかったことを明らかにし、古琉球期の国家形成をめぐる、議論を大きく飛躍させた。本書は学界から高い評価を受けており、第38回伊波普猷(ふゆう)賞を受賞している。
(A5 判 / 264 ページ / 本体価格 8,000 円)

本书通过明朝的对外政策、勘合贸易、琉球官生的实际派遣、与马六甲的比较、琉球朝贡贸易等方面，厘清了古琉球与明朝的关系，并阐明了这一关系对以海上交易为中心的新兴通商据点国家——琉球王国的形成过程所产生的作用与影响。作者指出，如果抛开与明朝的关系就不会出现琉球王国的形成。这一说法将古琉球时期国家形成的研究论说大大地向前推进了一步。本书受到学术界的高度评价，并荣获第38届伊波普猷奖。
(A5 纸型 / 264 页 / 税前价格 8,000 日元)

옛 류큐와 명조중국과의 관계를 명의 대외정책, 감합무역, 류큐관생의 실제, 말라카와의 비교, 류큐의 조공무역 등을 통해서 해명하고, 해상교역을 중심으로 한 신흥통상거점국가로서의 류큐왕국의 형성 과정에 해상교역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였는지,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해명하였다. 저자는 명과의 관계를 빼놓고는 류큐왕국의 형성은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밝혔고, 옛 류큐왕국의 국가형성을 관련한 의논을 비약시켰다. 본서는 학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제 38회 이하후유상伊波普猷賞을 수상하였다.
(A5 판 / 264 페이지 / 본서가격 8,000 엔)



『近世琉球中国交流史の研究—居留地・組織体・海域』

深澤秋人 (Akihito Fukazawa) 著
発行: 榕樹 (Yoju) 書林 (武石和実: Kazumi Takeish 記)

《近世琉球中国交流史的研究——居留地・组织・海域》

深澤秋人 (Akihito Fukazawa) 著
发行: 榕树 (Yoju) 书林 (武石和实: Kazumi Takeish 注记)

『근세 류큐 중국 교류사의 연구-거류지・조직체・해역』

후카사와 아키히토 저
발행: 용수서림 (다케이시 가즈미 記)

中国との対外交渉において琉球から中国に渡った渡唐使節の活動の実態あるいは中国での生活や、福州琉球館をめぐる動向更には、琉球を軸とした東アジア海域での交易活動の様態等福州琉球館を拠点とした琉球人ネットワークの実像を、近年続々と発掘されている新史料をもとに解析していく琉球・中国の交流の姿を明らかにしていく。窪徳忠 (のりただ) 賞受賞論文をもとにして刊行。

(A5判 / 387ページ / 本体価格 9,400円)

本书利用近年来相继发现的新史料，探析了在对中外交过程中赴华琉球使节的活动状况，或者说是华的生活状态和福州琉球馆的相关动态，以及以琉球为机轴的东亚海域贸易形态等以福州琉球馆为据点的琉球人交流网络的真实样态。本书是在窪徳忠 (Noritada) 获奖论文的基础上修改出版的。

(A5 纸型 / 387 页 / 税前价格 9,400 日元)

중국과의 대외교역에 있어서 류큐로부터 중국으로 건너간 도당사절의 활동 실태 또는 중국에서의 생활과 푸저우류큐관에 관한 동향, 류큐를 주축으로 한 동아시아해역에서의 교역활동 모습 등, 푸저우류큐관을 거점으로 한 류큐인 네트워크의 실상을 매해 연이어 발굴되고 있는 새로운 사료를 중심으로 류큐, 중국의 교류의 모습을 밝힌다. 쿠보노리타다상 수상 논문을 바탕으로 간행하였다. (A5도장 / 387페이지 / 본서가격 9,400엔)



『「琉球処分」を問う』

琉球新報 (The Ryukyu Shimpo) 社 編
発行: 琉球新報社 (奥間政寿: Masatoshi Okuma 記)

《质问“琉球处分”》

琉球新報 (The Ryukyu Shimpo) 社 编辑
发行: 琉球新报社 (奥间政寿: Masatoshi Okuma 注记)

『류큐처분을 묻는다』

류큐신보사 편
발행: 류큐신보사 (오쿠마 마사토시 記)

1879年の「琉球処分」の歴史的な位置づけ、時代背景などについて西里喜行 (Kiko Nishizato) 沖縄大学教授、比屋根照夫 (Teruo Hiyane) 琉球大学名誉教授、上里賢一 (Kenichi Uezato) 琉球大学教授、伊佐眞一 (Shinichi Isa) 琉球大学法科大学院院長の4氏が執筆。これまでの研究の蓄積を踏まえつつ、「琉球処分」という歴史的節目を問直し、沖縄の未来を切り開いていく視座について論じている。薩摩侵攻400年、「琉球処分」130年に当たる2009年の10月から始まり、2010年3月まで20回続いた連載をまとめた。(肩書はいずれも執筆当時)

(新書判 / 188ページ / 本体価格 933円)

关于1879年“琉球处分”事件的历史地位、时代背景等问题，冲绳大学教授西里喜行 (Kiko Nishizato)、琉球大学名誉教授比屋根照夫 (Teruo Hiyane)、琉球大学教授上里贤一 (Kenichi Uezato)、琉球大学法科大学院院长伊佐真一 (Shinichi Isa) 4人共同执笔。全书基于先前的研究成果，以重新审视“琉球处分”这一历史转折事件，开拓冲绳新未来的观点和立场进行论述。2009年正好是萨摩入侵琉球400年、“琉球处分”130年，本书辑录了自2009年10月起至2010年3月间的20篇连载论文。(文中所注的职务为作者执笔当时的职务)

(H173*W105mm 纸型 / 188 页 / 税前价格 933 日元)

1879년의 류큐처분의 역사적 평가와 시대배경 등에 관해서 니시자토 키코 오키나와대학 교수, 테루노 히야네 류큐대학 명예교수, 우에자토 켄이치 류큐대학 교수, 이사 신이치 류큐대학법과대학원 계장 4인이 집필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의 축적을 근거하면서 ‘류큐처분’이라 하는 역사적 시점을 재조명하고, 오키나와의 미래를 열어갈 관점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사츠마 침공 400년, ‘류큐처분’ 130년에 해당하는 2009년 10월부터 시작되어 2010년 3월 까지 20회동안 이어진 연재를 정리한 것이다. (저자의 직함은 집필 당시의 것이다) (신서판 / 188 페이지 / 본서가격 933 엔)



『薩摩侵攻 400 年 未来への羅針盤』

琉球新報 (The Ryukyu Shimpo) 社、南海日日新聞社 編
発行：琉球新報社 (奥間政寿：Masatoshi Okuma 記)

《萨摩入侵琉球 400 年 面向未来的指南针》

琉球新報 (The Ryukyu Shimpo) 社、南海日日新聞社 編輯
発行：琉球新報社 (奥間政寿：Masatoshi Okuma 注記)

『사츠마 침공 400 년 미래로의 나침반』

류큐신보사 편, 남해일일신문사 편
발행: 류큐신보사 (오쿠마 마사토시 記)

1609 (慶長 14) 年、薩摩に征服されるまで琉球は、首里王府が統治する独立国家だった。侵攻以降、琉球は薩摩支配下に置かれ、かつてその歴史像は暗く惨めな時代として描かれてきた。だが近年、史料に基づく研究が進み、活力ある歴史像が次々と発掘されている。1609 年を起点とする歴史の流れをどうとらえ、未来をどのように展望すればいいのか。沖縄、鹿児島、奄美の著名な歴史学者が近世琉球の歴史を検証している。2009 年 1 月から 10 月まで 31 回にわたり同タイトルで連載した琉球新報・南海日日新聞の両社による合同企画をまとめた。
(新書判 / 210 ページ / 本体価格 933 円)

1609 (庆长14) 年萨摩入侵之前，琉球还是一个由首里王府统治的独立国家。被侵之后，琉球被纳入萨摩的统治之下，那段被侵略的历史，以往大多被描绘为是黑暗而悲惨的时期。但近年来，随着史料研究的推进，极具活力的历史像被相继还原呈现。如何审视以1609年为起点的历史发展进程，又该如何展望未来等问题，冲绳、鹿儿岛、奄美等地的著名历史学家对近世琉球的历史进行了论证。琉球新报与南海日日新闻两家报社共同企划，将2009年1月至同年10月间31次连载刊登的同一标题的内容进行辑录出版。
(H173*W105mm 纸型 / 210 页 / 税前价格 933 日元)

1609년, 사츠마에 정복되기 전까지 류큐는 슈리왕부가 통치하는 독립국가이었다. 침공 이후, 류큐는 사츠마의 지배하에 놓여졌고 과거의 역사관은 어둡고 비참한 시대로 그려졌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사료에 의거한 연구가 진행되어 활력이 넘치는 역사가관이 연이어 발굴되고 있다. 1609년을 기점으로 하는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미래를 어떻게 전망해야 할 것인가. 오키나와, 카고시마, 아마미의 저명한 역사학자가 근세 류큐의 역사를 검정한다.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31회에 걸쳐 동 타이틀로 연재한 류큐신보, 남해일일신문 양사에 의한 합동기획을 정리한 것이다.
(신서판 / 210 페이지 / 본서가격 933 엔)

《現代史》 《现代史》 《현대사》



『戦後をたどる「アメリカ世」から「ヤマト世」へ』

那覇市歴史博物館 編
発行：琉球新報社 (奥間政寿：Masatoshi Okuma 記)

《迈向战后 从‘美国时代’走向的‘大和时代’》

那覇市历史博物馆 編
発行：琉球新報社 (奥間政寿：Masatoshi Okuma 記)

『전후의 길을 걷다 - 미국에서 야마토로』

나하시역사박물관 편
발행: 류큐신보사 (오쿠마 마사토시 記)

終戦直後の収容所で生活する住民にはじまり、米軍統治時代から復帰を経て、2000年の沖縄サミットにいたるまで、政治・経済・教育・文化など那覇の戦後史を幅広く紹介している。特に敗戦後から復帰前後の約30年間の出来事を中心に掲載している。琉球新報紙上での「戦後をたどる 写真で見る沖縄の60年」と題した連載と、那覇市中央公民館となは女性センターが共同企画で開催した「市民歴史講座」の内容を再構成。那覇市制40年記念の市史刊行事業の一環として出版。
(A5変形判 / 316 ページ / 本体価格 2,400 円)

本书以战后之初生活于收容所的居民开篇，历经美军统治时代和复归日本本土，再到2000年的冲绳七国首脑会议，从政治、经济、教育、文化等方面宽领域地介绍了那覇的战后发展史。尤为着重地刊载了从战败后到复归前后约30年间的世故变迁。全书以琉球新报连载的题为“迈向战后 照片中的冲绳60年”的内容，以及那覇市中央公民馆和那覇女性中心共同策划开展的“市民历史讲座”的内容为基础，进行整理重编出版，是纪念那覇市制40年年的市史出版活动之一。
(H210*W118纸型 / 316 页 / 税前价格 2,400 日元)

종전직후의 수용소에서 생활한 주민을 비롯하여, 미군통치시대로부터 복귀를 거쳐 2000년의 오키나와회담에 이르기까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나하의 전후사를 폭넓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패전후부터 약 30년간의 일들을 중심으로 게재하고 있다. 류큐신보에서 ‘전후의 길을 걷다-사진으로 보는 오키나와의 60년’을 주제로 한 연재와, 나하시중앙공민관과 나하여성센터가 공동기획으로 개최한 ‘시민역사강좌’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나하시제 40년 기념 시사간행사업의 일환으로 출판되었다.
(A5 변형 판 / 316 페이지 / 본서가격 2,400 엔)



『沖縄の市場（マチグワー）文化誌』

小松かおり (Kaori Komatsu) 著
発行：ボーダーインク (新城和博：Kazuhiro Shinjo 記)

《冲绳的市场文化志》

小松Kaori (Kaori Komatsu) 著
发行：Borderink (新城和博：Kazuhiro Shinjo 注记)

『오키나와의 시장 (Machigwa) 문화지』

고마츠 카오리 저
발행: 보더잉크 (신조 가즈히로 記)

〈牧志公設市場ほどの迫力と猥雑さを感じたのは初めてだった。この市場はどうして成り立っているのか?〉那覇市第一牧志公設市場をめぐる文化人類学的フィールドワークとアグー、モズク、海ぶどう、そして島バナナの生産の現場での調査。市場の変化を通して考える、沖縄のこれまでとこれから。研究者のみならず一般読者にわかりやすく市場の魅力と新商品にまつわる物語を読み解く、おもしろさ抜群の文化誌。アジア全般に通底する市場文化を捉えるのに最適な一冊。

(A5判 / 204 ページ / 本体価格 1,800 円)

“第一次感受到牧志公社市场的压迫感和杂乱感，这个市场又是如何形成的呢？”作者围绕那覇市第一牧志公社市场进行文化人类学的野外现场调查，并到冲绳黑猪、海蕴、海葡萄、还有县产香蕉的生产前线进行调查。通过市场的变迁思考冲绳的现在与未来。本书采用通俗易懂的写作语言解读了有关市场的魅力和新商品的故事，不仅是研究人员，就连一般读者也能轻松理解，是一册乐趣超群的文化书籍，也是一部最适合了解和掌握亚洲全域共通的市场文化的作品。

(A5 纸型 / 204 頁 / 税前价格 1,800 日元)

‘마키시공설시장 정도의 박력과 난잡함을 느낀 건 처음이었다. 이 시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인가’ 나하시 제 1 마키시공설시장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필드워크와, 아구 (오키나와 흑돼지), 큰실말, 우미부도, 그리고 섬바나나의 생산을 현장에서 조사하였다. 시장의 개화를 통해서 오키나와의 과거와 미래를 고찰하였다. 연구자 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도 이해하기 쉬운 시장의 매력과 신상품에 관한 이야기를 읽기 쉽게 재미있게 다룬 문화지이다. 아시아 전반에 통저하는 시장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최적인 책이다.

(A5 판 / 204 페이지 / 본서가격 1,800 엔)

『基地問題』 《基地问题》 『기지문제』



『データで読む沖縄の基地負担』

沖縄探見社 編
発行：沖縄探見社 (高橋哲朗：Tetsuro Takahashi 記)

《用数据解读冲绳的基地负担》

沖縄探見社 (okinawatannken) 編
发行：沖縄探見社 (高橋哲朗：Tetsuro Takahashi 注记)

『데이터로 읽는 오키나와의 기지부담』

오키나와탐험사 편저
발행: 오키나와탐험사 (다카하시 데츠로 記)

沖縄の基地問題といえば、普天間基地の移設問題ばかりが注目されるが、航空機騒音、米兵犯罪、事故の危険、環境汚染など多岐にわたり、さらにベトナム戦争時代の「遺産」枯れ葉剤問題も終わっていない。こうした基地問題をめぐって、日々伝えられる情報やデータは断片的で、時として専門的な用語をはらんでおり、分かりにくいことが多い。そこで、本書では、分野ごとに関連する情報やデータを時間軸に沿って並べ整理するとともに、やさしい説明や歴史的背景を加え解きほぐすことによって、基地負担の全体像を描く。

(A5判 / 128 ページ / 本体価格 1,100 円)

提起沖縄の基地问题，大多数人都比较关注普天间基地的迁移问题，但事实上飞机噪音、美军犯罪、危险事故、环境污染等多方面，甚至是越南战争时代的“后遗症”——落叶剂问题也都还悬而未决。围绕着上述基地问题，平常所能了解到大多是间断不连续的信息和数据，有时还夹杂着许多难懂的专业术语。本书通过将各领域的相关资料和数据按时间顺序进行归纳整理，并附通俗易懂的说明和历史背景加以分析和介绍，勾勒出基地负担的整体情况。

(A5 纸型 / 128 頁 / 税前价格 1,100 日元)

오키나와의 기지문제를 꺼내면, 후텐마기지의 이주문제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나, 항공기소음, 미군범죄, 사고의 위험, 환경오염 등 여러가지로 문제를 안고 있으며, 게다가 베트남 전쟁시대의 ‘유산’ 고엽제문제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기지 문제를 둘러싸고 매일매일 전달 되는 정보와 데이터는 단편적이며, 때로는 전문적인 용어의 남발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분야별로 관련된 정보와 데이터를 시간축에 따라 정리함과 동시에 알기 쉬운 설명과 역사적 배경을 덧붙여 풀어헤침으로서 기지부담의 전체상을 그리고 있다.

(A5 판 / 128 페이지 / 본서가격 1,100 엔)



『「アメとムチ」の構図—普天間移設の内幕』

渡辺豪 (Tsuyoshi Watanabe) 著
発行：沖縄タイムス社 (友利仁：Hitoshi Tomori 記)

《“糖与鞭子”的构思—普天间移设的内幕》

渡辺豪 (Tsuyoshi Watanabe) 著
发行：沖縄时报社 (友利仁：Hitoshi Tomori 注记)

『당근과 채찍의 구도—후텐마 이설의 내막』

와타나베 츄요시 저
발행: 오키나와 타임즈사 (도모리 히토시 記)

日本政府による沖縄施策、特に米軍基地問題に関する怀柔策には「アメ(振興策や交付金)とムチ(恫喝や強権的な手法)」という言葉がよく使われる。普天間飛行場の移設先を沖合から陸上への変更で日米が合意した2005年から約3年間の、大臣、官僚、首長、建設業界人などのそれぞれの思惑と言動を新聞記者が綿密な取材で追い、「アメとムチ」の内容にリアルに迫ったドキュメント。資料と語句注釈が付されており、今も混迷を続ける「辺野古」問題の理解にも役立つ。

(新書判 / 202 ページ / 本体価格 952 円)

日本政府施行の沖縄政策、尤其是关于美军基地问题的怀柔政策中，经常会使用“糖(振兴策略和补助金)与鞭子(恐吓和强权手段)”一词。2005年，日美双方在普天间机场的移设问题上达成协议，移设地由海湾变为陆地。自此之后的约3年期间，新闻记者对大臣、官员、地方团体领导、建筑界人士等各阶层人物的意图和言行进行细致的采访。本书所使用的资料来源于采访内容，因此可谓是从真正意义上切入“糖与鞭子”内容的一手文献。书中附有资料与语句注释，对当前陷入混乱局势的“边野古”问题的理解，亦有裨益。

(H173*W105mm 纸型 / 202 页 / 税前价格 952 日元)

일본정부에 의한 오키나와시책, 특히 미군기지문제에 관한 회유책에는 ‘당근(진흥책과 교부금)과 채찍(공갈과 강권적인 수법)’이란 말이 자주 인용된다. 후텐마비행장의 이전처를 앞바다에서 육상으로 변경하기로 일본과 미국이 합의를 본 2005년으로부터 약 3년간의 대신, 관료, 수장, 건설업계인 등의 저마다의 의혹과 언동을 신문기자가 세밀하게 취재를 하여 ‘당근과 채찍’의 내용에 리얼하게 취재한 기록이다. 자료와 어구주석이 추가되었으며, 지금도 혼미에 빠진 ‘헤노코’ 문제의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신서판 / 202 페이지 / 본서가격 952 엔)



『砂上の同盟—米軍再編が明かすウソ』

屋良朝博 (Tomohiro Yara) 著
発行：沖縄タイムス社 (友利仁：Hitoshi Tomori 記)

《沙上同盟—美军重组揭开的谎言》

屋良朝博 (Tomohiro Yara) 著
发行：沖縄时报社 (友利仁：Hitoshi Tomori 注记)

『모래 위의 동맹—미군재편이 밝히는 거짓말』

야라 아침 히로시 저
발행: 오키나와 타임즈사 (도모리 히토시 記)

なぜ沖縄に米軍基地がかくも集中するのか、それはこれまで語られてきたような「地理的優位性」などではなく、政治なのだ。今や沖縄県民共通の認識になった事実を、初めて大きく世に広めたのが本書である。米軍海兵隊の成り立ちや、日本本土から沖縄へ移駐されてきた歴史を紐解き、さらに装備や配置人数などを具体的に挙げ、従来の通説を具体的に論破、「日本のどこにいても構わない」との言質も引き出した。沖縄基地問題を考える必読書として多くの読者を得た。

(新書判 / 246 ページ / 本体価格 1,200 円)

为何美军基地集中在沖縄? 事实上, 那并非如以往所说的是由于“地理优势”, 而是政治的因素。本书首次将冲绳县民现今普遍认知的事实公众于世, 揭示了美国海军队的成立及其由日本本土移驻冲绳的历史过程, 并具体列出美军的装备和配备人数, 以具体的数据推翻了以往的通说, 得出“美军基地在日本任何地方都可以建造”的结论。本书是思考冲绳基地问题必读之书, 深得读者好评。

(H173*W105mm 纸型 / 246 页 / 税前价格 1,200 日元)

어째서 이리도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집중하는 것인가, 그것은 지금까지 이야기기가 되어 온 것처럼 ‘지리적 우위성’ 등 때문이 아니라, 정치문제이다. 지금은 오키나와현민들의 공통의 인식이 된 사실을 처음으로 이 세상에 널리 알린 것이 본서이다. 미군해병대의 성립과 일본 본토로부터 오키나와에 이주하게 된 역사를 풀어내고, 더 나아가 장비와 배치 인력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고, 이전의 통설을 구체적으로 논파하였으며, ‘일본 어디에 있어서 상관없다’ 이러한 발언도 끌어내었다. 오키나와지문제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필독서이며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신서판 / 246 페이지 / 본서가격 1,200 엔)



『沖縄の基地問題』

沖縄国際大学公開講座委員会 編

発行：沖縄国際大学公開講座委員会 発売元：ボーダーインク（池宮紀子：Noriko Ikemiya 記）

《冲绳的基地问题》

冲绳国际大学公开讲座委员会 编辑

发行：冲绳国际大学公开讲座委员会 总经销店：Borderink（池宫纪子：Noriko Ikemiya 注记）

『오키나와의 기지문제』

오키나와 국제대학 공개 강좌 위원회 편

발행: 오키나와 국제대학 공개 강좌 위원회발매원:보더잉크 (이케 미야 노리코 記)

本書は1997年に発行されたものであるが、基地問題に関して根本的な問題をそれぞれの専門家により多角的にまとめられたものである。犯罪、反戦、平和、地方分権、軍用地料、国際情勢、跡利用など総合的に12人の論客が基地に関わる問題が述べられている。未だにこれらの問題は継続しており、沖縄の基地問題は民主主義の問題であり、アジアの中で沖縄をどうとらえられるかという問題を提示している。

(四六判 / 314 ページ / 本体価格 1,456 円)

本书于1997年出版发行。由各领域的研究专家从多角度对基地的根本性问题进行归纳总结，12位评论专家对基地的相关问题进行阐述，内容涉及犯罪、反战、和平、地方分权、军用地费用、国际形势、遗址利用等方面。现今这些问题仍然存在，冲绳的基地问题是民主主义问题，作者提出了应如何理解冲绳在亚洲地区的定位问题。

(H188*W130mm 纸型 / 314 页 / 税前价格 1,456 日元)

본서는 1997년에 발행된 것이기도 하나, 기지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각각의 전문가에 의한 다각적인 시각에서 정리한 것이다. 범죄, 반전, 평화, 지방분권, 군용지료, 국제정세, 적이용跡利用 등 총 12명의 논객이 기지에 관한 문제를 기술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되고 있으며, 오키나와기지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 아시아 속에서 오키나와를 어떻게 이해하고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사륙판 / 314 페이지 / 본서가격 1,456 엔)



『基地の島 コンパクト事典』

沖縄文化社 編

発行：有限会社 沖縄文化社（徳元大也：Hiroya Tokumoto 記）

《基地之岛 小百科事典》

冲绳文化社 编辑

发行：有限公司 冲绳文化社（徳元大也：Hiroya Tokumoto 注记）

『기지의 섬 콤팩트사전』

다카에스기칸 편저

발행: 오키나와문화사 (도쿠모토 히로야 記)

本書は「基地の島キーワード」「沖縄の米軍基地」「巻末資料」の三章に分けられ、沖縄の米軍基地問題や、アメリカ軍統治下の状況を読み解く上で、重要な単語や歴史的事件・事故、および在沖米軍の各基地について、沖縄の目線で解説。さらに、巻末資料にはニミッツ布告や祖国復帰闘争碑の碑文、沖縄戦後史を掲載し、単なる単語帳ではなく、それぞれの時代の文脈や背景を俯瞰できるような構成とした。日米両政府による人権侵害の実態を知るための一冊。

(B6判 / 104 ページ / 本体価格 951 円)

全书内容分为“基地之岛关键词”、“冲绳的美军基地”、“卷末资料”三章，在解读冲绳美军基地问题和美军统治下的社会状况的基础上，从冲绳的角度和立场上对重要的词语和历史性事件以及在冲绳各美军基地的相关状况进行解说。此外，“卷末资料”这一部分中收录了尼米兹公告和复归祖国斗争碑的碑文以及冲绳战后历史。这些附录并非单纯的单词整理，而是可以纵观各时代的逻辑承接关系和背景的整体结构。是一部揭露美日政府侵害人权真相的力作。

(B6 纸型 / 104 页 / 税前价格 951 日元)

본서는 ‘기지의 섬 키워드’,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권말자료卷末資料’ 이렇게 3장으로 나누어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문제와, 미군통치하의 상황을 알기 쉽게 저술하였고, 중요한 단어와 역사적 사건, 사고 및 현재의 오키나와의 주둔 중인 미군의 각기지에 관해서 오키나와의 시선으로 해설하였다. 게다가 권말자료에는 니미츠 포고와 조국귀국전쟁비의 비문, 오키나와전후사를 게재하였다. 단순한 단어집이 아니라, 각각의 시대의 문맥과 배경을 조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일본과 미국 양정부에 의한 인권침해의 실태를 알기 위한 필독서이다.

(B6 판 / 104 페이지 / 본서가격 951 엔)



『組踊の世界』

発行：ゆい出版（松田米雄：Yoneo Matsuda 記）

《组舞的世界》

发行：Yui出版（松田米雄：Yoneo Matsuda 注记）

『쿠미오도리의 세계』

발행: Yui출판 (마쓰다 요네오:Yoneo Matsuda 記)

台詞・所作・音楽で構成され、沖縄の風土と精神性に根付いた総合楽劇「組踊」。組踊は、古典的楽劇でありながら、本書では、今に生きる私たちに通じる世界があることを余すところなく伝えている。凝縮された様式で描かれる組踊の物語（ドラマ）・人物・世界観を丁寧に分かりやすく解説した組踊入門に最適の本。組踊は面白い。

“组舞”是一种扎根于冲绳的风土人情和精神性的综合乐剧，由台词、动作、音乐构成。虽然组舞是一种古典乐剧，但本书毫无保留地传达了一个信息，即组舞与今天的我们有着共通的世界。本书对凝练描述的组舞故事（剧本）、人物、世界观进行了深入浅出的通俗解说，是一部最合适组舞入门的作品。组舞乐趣无穷。

대사, 연기, 음악으로 구성되어 오кина와의 풍토와 정신성에 근거한 종합악극이 바로 ‘쿠미오도리’이다. 고전적 악극이지만, 본서에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통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빠짐없이 전해주고 있다. 응축된 양식으로 그려진 쿠미오도리의 이야기, 인물, 세계관을 정중하게 또한 알기 쉽게 설명한 쿠미오도리 입문서가 바로 본서이다. 쿠미오도리는 실로 재미있다.



『恋するしまうた 恨みのしまうた』

仲宗根幸市 (Koichi Nakasone) 著

発行：ボーダーインク（新城和博：Kazuhiro Shinjo 記）

《爱恨绵绵的岛歌》

仲宗根幸市 (Koichi Nakasone) 著

发行：Borderink（新城和博：Kazuhiro Shinjo 注记）

『사랑의 시마우타 (섬노래) 원한의 시마우타 (섬노래)』

나카소네 고이치 저

발행: 보더잉크 (신조 가즈히로 記)

〈しまうた〉とは、琉球弧につたわる伝統的な歌謡・民謡を指すが、近現代においても新しい〈しまうた〉は生まれている。(民謡)の採集と解明は推理ドラマにも似ている。なぜなら、あるテーマを追いかけ、関連ある情報、資料、証言を集め、一つひとつ積み上げながら謎を解いていくからである。本書は、琉球弧のしまうた探求者である「しまうた研究者」の著者が、現地におもむき知り得た様々の謎の解明を、土着の研究者ならではの名調子でまとめたものである。

(新書判 / 174 ページ / 本体価格 900 円)

“岛歌”是指在流传于琉球弧列岛上的传统歌谣和民谣，但是在近现代也出现了新的“岛歌”。“民谣”的蒐集和解析如同推理电视剧一般。为何这般说法？因为其蒐集的步骤往往就是先沿着一个主题，蒐集相关的信息、资料和访谈证言，逐一累积，最后解开谜底。本书作者是琉球弧群岛的岛歌探寻研究者，他亲赴各地，将所收集的各种谜团的解释以当地研究者独有的技巧进行整理出版。

(H173*W105mm 纸型 / 174 页 / 税前价格 900 日元)

시마우타 (섬노래) 란 류큐호에 전해지는 전통적인 가요, 민요를 뜻하지만, 근현대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마우타가 생겨나고 있다. 민요의 채집과 해명은 추리드라마와도 비슷하다. 그 이유는 한 테마를 쫓아 관련된 정보와 자료, 증언을 모아 하나씩 하나씩 쌓아올려가면서 문제를 풀어가기 때문이다. 본서는 류큐호의 시마우타 탐구자인 ‘시마우타 연구자’의 저자가 현지에서 얻은 다양한 궁금점의 해명을 토착 연구자특유의 곡조로 정리한 것이다.

(신서판 / 174 페이지 / 본서가격 900 엔)



『世界のなかの沖縄文化』

渡邊欣雄 (Yoshio Watanabe) 著
発行：沖縄タイムス社 (友利仁：Hitoshi Tomori 記)

《世界上的冲绳文化》

渡边欣雄 (Yoshio Watanabe) 著
发行：冲绳时报社 (友利仁：Hitoshi Tomori 注记)

『세계속의 오키나와 문화』

와타나베 요시오 저
발행: 오키나와 타임즈사 (도모리 히토시 記)

「世界から見える沖縄・沖縄から見える世界」をテーマに、門中、位牌、洗骨、風水、祭り、綱引き、獅子舞、命名などの題材を取り上げ(全40回)、沖縄独特と思われるそれらが世界(主に東アジア)とどのような類似点、相違点があるかを平易な文章で解説している。写真を多く配した沖縄民俗入門書の趣きながら、沖縄研究の蓄積をふんだんに詰め込んでいるので、その内容は深い。刊行は1993年ながら内容は古びず、今も増刷を続けている。(B5判変型/150ページ/本体価格2,340円)

本书以“世界视野下的冲绳、冲绳视野下的世界”为主题，选取了门中(宗族)、牌位、洗骨、风水、祭祀、拔河、狮子舞、取名等题材(共40次)，用通俗易懂的言辞解析那些具有冲绳特色的文化与世界上其他国家(主要是东亚)文化之间存在何种相似处和不同点。书中配有大量插图，似有冲绳民俗入门书之感，但事实上蕴含了深厚的冲绳研究积淀，内容颇为深奥。尽管出版时间是1993年，但内容并不陈旧，时至今日仍在继续增印。(H230*W182mm 纸型/150页/税前价格2,340日元)

‘세계에서 보이는 오키나와, 오키나와에서 보이는 세계’를 테마로 문츄, 위패, 풍수, 축제, 줄다리기, 사자춤, 명명 등의 주제를 조명한(전40권) 책이다. 오키나와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세계(주로 동아시아)와 어떠한 유사점, 차이점이 있는지를 평이한 문장으로 해설하고 있다. 사진을 많이 게재한 오키나와민속입문서이면서, 오키나와 연구의 축적을 아낌없이 담고 있기에 실로 내용이 깊다. 간행은 1993년이지만 내용은 낡지 않았으며 지금도 증쇄를 이어가고 있다。(B5 판 변형 /150 페이지 / 본서가격 2,340 엔)



『島の手仕事 一八重山染織紀行 一』

安本千夏 (Chika Yasumoto) 著
発行：南山舎：Nanzansya (大森一也：Kazuya Oomori 記)

《海島工艺——八重山染织纪行》

安本千夏 (Chika Yasumoto) 著
发行：南山舎：Nanzansya (大森一也：Kazuya Oomori 注记)

『섬의 수예 - 야에야마 염색과 직조 기행』

야스모토 치카 Chika Yasumoto 저
발행: 난잔샤 Nanzansya (오모리 가즈야 記)

八重山諸島には、今も島々に生活に根付いた豊かな染織文化が残っている。古来より、島人は苧麻や芭蕉から糸をとり、島の草木で染色し、家族のために着物をつくってきた。島の手仕事には、手技を伝えてきた祖先への畏敬の想い、八重山の自然に対する深い感謝の気持ちがこめられている。資料編に八重山の糸素材、染料植物、織物用具、八重山の主な織物がカラー写真で紹介されている。第3回南山舎やいま文化大賞、第36回沖縄タイムス出版文化賞受賞。第14回パピルス大賞受賞。(A5判/384ページ/本体価格2,800円)

今天的八重山群岛上仍然保留着与海岛生活息息相关的丰富的染织文化。自古以来，岛上的居民从苧麻和芭蕉中抽线，以岛上的草木染色，为家人制作衣物。岛上工艺饱含着对先祖的崇高敬意以及对八重山大自然的深切谢意。资料篇中以彩图的形式介绍了八重山的丝料、染料植物、纺织道具以及八重山主要的染织品。本书曾荣获第3届南山舎八重山文化大奖和第36届冲绳时报出版文化奖。第14届PAPYRUS奖获奖 (A5 纸型/384页/税前价格2,800日元)

야에야마제도에는 지금도 각 섬에 생활에 뿌리내린 풍족한 염색문화가 남아 있다. 고대로부터 섬사람은 모시풀과 파초에서 실을 짚으며, 섬의 풀나무로 물들이고 가족을 위해 기모노를 만들었다. 섬의 수예에는 기술은 남겨준 선조에 대한 경외심과 야에야마의 자연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자료편에 야에야마의 실소재, 염료식물, 직물용구, 야에야마의 주 직물 등이 컬러사진으로 소개되어 있다. 제 3회 난잔샤야이문화대상, 제 36회 오키나와타임즈출판문화상과 제 14회 파피루스상을 수상하였다。(A5 판 /384 페이지 / 본서가격 2,800 엔)



『壺屋焼入門』

倉成多郎 (Taro Kuranari) 著
発行: ボーダーインク (新城和博: Kazuhiro Shinjo 記)

《壺屋焼入門》

倉成多郎 (Taro Kuranari) 著
発行: Borderink (新城和博: Kazuhiro Shinjo 注記)

『항아리굽기 입문』

구라나리 다로 저
발행: 보더잉크 (신조 가즈히로 記)

島じまの風土と文化のなかで生まれた沖縄の陶芸・壺屋焼。そのルーツ探究は、中国、朝鮮、日本とアジア全域へとひろがる。本書はこれまでの研究成果に基づいて壺屋焼の歴史をたどり、その特徴、作り方、陶工達とその作品、やちむんの里・壺屋のまち歩きのポイントを紹介。琉球王国時代から琉球処分、沖縄戦を経て現代へと続く遙かなる壺屋焼の旅へ！ 沖縄民芸の代表やちむん・壺屋焼の歴史がわかる待望の入門書。

(新書判 / 182 ページ / 本体価格 1,000 円)

群島的风土人情和文化孕育了冲绳的陶艺——壺屋烧的产生。究其来源，可扩大到中国、朝鲜、日本和亚洲全域。本书在前人研究的成果基础上，阐述了壺屋烧的历史，并对其特征、烧制方法、制陶工匠及其作品、yachimun (陶瓷) 故里壺屋的参观要领进行了介绍。从琉球王国时代，历经琉球处分和冲绳战直至现代，壺屋烧走过了漫长的历史之旅。本书是一部了解冲绳民间艺术代表——壺屋烧历史的入门书籍，值得期待。

(H173*W105mm 纸型 / 182 页 / 税前价格 1,000 日元)

섬들의 풍토와 문화 속에서 태어난 것이 오키나와 도예, 도자기굽기이다. 그 뿌리의 탐구는 중국, 조선, 일본과 아시아 전역으로 펼쳐진다. 본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에 기초한 도자기굽기의 역사를 되새기며, 그 특징과 만드는 법, 도공들과 그 작품, 야치문마을, 츠보야마을을 둘러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한다. 류큐왕국시대로부터 류큐처분, 오키나와전을 거쳐 현대로 이어져 오는 머나먼 도자기굽기의 길! 오키나와민예의 대표 야치문과 도자기굽기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대망의 입문서이다.

(신서판 / 182 페이지 / 본서가격 1,000 엔)

《民俗》 《民俗》 《민속》



『エイサーだいでちむどんどん』

作: 松田幸子 (Sachiko Matsuda) · 絵: うえずめぐみ (Megumi Uezu)
発行: ジグゼ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 (宮城一春: Kazuharu Miyagi 記)

《令人心潮澎湃的太鼓舞》

作品: 松田幸子 (Sachiko Matsuda) · 绘图: Megumi Uezu
発行: Jiguze Communications (宮城一春: Kazuharu Miyagi 注記)

『Eisa Daiko de Chimudondon』

글: 마쓰다 사치코 (Sachiko Matsuda) · 그림: Megumi Uezu
발행: Jiguze Communications (카즈라루 이야기: Kazuharu Miyagi 記)

旧曆の7月13日～15日は沖縄のお盆。ご先祖さまが、あの世から帰ってくる日。そのときに行われるエイサーは、人々が楽しみにしている勇壮な踊り。エイサー太鼓の音は、沖縄の人をチムドンドン (胸を躍らせること) させます。ご先祖さまと楽しくエイサー見物。本書は、そんなエイサーとそれを楽しみにしている人々が絵本の中から飛び出てくるしかけ絵本。文章も日本語やウチナーグチ (沖縄の方言)、英語で展開されています。

(A4 変形判 / 12 ページ / 本体価格 2,350 円)

农历7月13日至15日是冲绳的盂兰盆节，据说这几天先祖的灵魂会归来。在这个节日期间表演的太鼓舞是众人期待的雄壮舞蹈。阵阵鼓声，让冲绳的人们心潮澎湃，与归来的先祖们一同观赏太鼓舞，乐享其中。本书采用3D立体的形式印制，仿佛太鼓舞表演者和观赏者会从书中跳出来一般。文字说明采用了日语、冲绳方言和英语三种语言。

(美国标准信笺纸型 / 12 页 / 税前价格 2,350 日元)

음력 7월 13일부터 15일은 오키나와의 오봉입니다. 조상님이 저세상에서 돌아오시는 날입니다. 그 때에 행하는 에이스는 사람들이 고대하는 웅장한 춤입니다. 에이사북소리는 오키나와사람을 치무둥둥 (가슴을 뛰게 하는) 하게 만듭니다. 조상님과 즐겁게 에이스를 감상합니다. 본서는 그런 에이스와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을 다룬 그림책입니다. 문장도 일본어, 오키나와방언, 영어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A4 변형 판 / 12 페이지 / 본서가격 2,350 엔)



『沖繩の伝統行事・芸能を歩く』

高橋哲朗 (Tetsuro Takahashi) 著
発行：沖繩探見 (okinawatannken) 社 (高橋哲朗 記)

《沖繩的传统节日和艺术漫游》

高橋哲朗 (Tetsuro Takahashi) 著
発行：沖繩探見 (okinawatannken) 社 (高橋哲朗 注記)

『오кина와의 전통행사・예능을 걷는다』

다카하시 데쓰로 저
발행：오кина와탐험사 (okinawatannken) (다카하시 데쓰로 記)

天才・岡本太郎を「こんな小さな島の中に、どうしてあんなに数多く、豊かに残っているのか」と驚嘆させた民俗芸能を、沖繩に今も息づく旧曆文化に沿って紹介している。同じ季節の節目でも、本土とまったく異なる行事や芸能が披露される点に触れるとともに、県内でも地域ごとに行事や芸能の違いが大きいことから、豊富な写真を使って地域の特色や伝統の由来を解説。エイサーや獅子舞などの伝統行事・芸能は、地域のイベントの中で頻繁に上演され気軽に見られるため、こうしたイベントの開催・鑑賞情報もふんだんに盛り込んでいる。
(A5版／128ページ／本体価格 1,100円)

天才岡本太郎在见识了冲绳的民俗艺能后惊叹不已道：“如此弹丸海岛，竟然保留着如此丰富？”本书按冲绳至今仍沿用的旧历文化对冲绳的民俗艺能进行介绍。即便是相同的节气，冲绳举行的仪式和艺能表演与日本本土截然不同，甚至县内各地区的仪式和艺能表演也存在很大差异，因此书中使用了大量的图片资料，对地区的特色和传统的由来进行了解说。由于太鼓舞和狮子舞等传统仪式和艺能在各地区的文化活动中经常有表演，因此，书中也大量收录了相关文化活动的举行、参观信息。
(A5 纸型 / 128 页 / 税前价格 1,100 日元)

천재 마츠모토 타로를 ‘이런 작은 섬 안에, 어떻게 저렇게나 많이 남아 있는 것인가’ 이렇게 경탄시킬 정도의 민속 예능을 오кина와에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는 음력문화를 따라서 소개하고 있다. 동일한 계절의 절목에서도 본토와는 전혀 다른 행사와 예능이 펼쳐진 점을 다루는 것과 동시에, 현내에서도 지역별로 행사와 예능의 차이가 큰 것을 말미암아 풍부한 사진을 사용하여 지역의 특색과 전통의 유래를 설명한다. 에이사와 사자춤 등의 전통행사, 예능은 지역의 이벤트 중에서 빈번하게 상연되어 쉽게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의 개최, 감상정보도 많이 담았다.
(A5 판 / 128 페이지 / 본서가격 1,100 엔)



『泡盛の文化誌』 沖繩の酒をめぐる歴史と民俗

萩尾俊章 (Hagio Toshiaki) 著
発行：ボーダーインク (池宮紀子：Noriko Ikemiya 記)

《泡盛文化志》——以冲绳酒为中心的历史和民俗

萩尾俊章 (Hagio Toshiaki) 著
発行：Borderink (池宮紀子：Noriko Ikemiya 注記)

『아와모리의 문화지』 오кина와의 술을 둘러싼 역사와 민속

하기오 도시아키 저
발행：보더잉크 (이케미야 노리코 記)

600年以上沖繩で愛されてきた沖繩の酒・「泡盛」は沖繩が世界に誇るスピリッツ（蒸留酒）である。その泡盛について豊富な文献資料や、東南アジア各国でのフィールドワークの成果をまとめた沖繩の酒文化研究の集大成となる一冊。泡盛のルーツはひとつではなく、シャム（現タイ）や中国・福建地域など複数のルートから伝わった技法と、泡盛だけに使われる麴「黒麴菌」が結びついて出来上がったとする。写真や図版多用。
(A5判／203ページ／本体価格 1,800円)

在冲绳深受喜爱长达600年以上之久的冲绳酒——泡盛是冲绳引以傲娇世界的蒸馏酒。本书运用了大量有关泡盛的文献资料以及在东南亚各国田野调查的研究成果，是一部关于冲绳酒文化研究的集大成之作。书中指出，泡盛传入冲绳的路径并非单一，而是从暹罗（今泰国）和中国福建地区等多方途径传入的技法 and 仅用于酿造泡盛的麴（黑麴菌）有机结合后产生的。全书使用了很多照片和插图。
(A5 纸型 / 203 页 / 税前价格 1,800 日元)

600년 이상 오кина와에서 사랑받은 오кина와의 술 ‘아와모리’는 오кина와가 세계에 자랑하는 오кина와의 혼 (증류주) 이다. 그 아와모리에 관한 풍부한 문헌자료와 동남아시아 각국에서의 필드워크의 성과를 정리한 오кина와의 술문화연구를 집대성한 책이다. 아와모리의 뿌리는 하나가 아니며 삼 (태국의 옛이름) 과 중국, 푸젠지역 등 복수의 루트에서 전해진 기법과, 아와모리에서만 사용되는 누룩 (흑색 아스페르길루스) 를 혼합하여 완성된 것이라 한다. 사진과 도판을 다수 실었다.
(A5 판 / 203 페이지 / 본서가격 1,800 엔)



『神々の古層』全十二巻

写真・文：比嘉康雄 (Yasuo Higa)
発行：ニライ社 (宮城一春：Kazuharu Miyagi 記)

《神祇的历史古层》全十二卷

照片・文：比嘉康雄 (Yasuo Higa)
发行：Nirai社 (宮城一春：Kazuharu Miyagi 注记)

『신들의 고층古層』전 12 권

사진·문장: 히가 야스오 (Yasuo Higa)
발행: Nirai사 (미야기1봄:Kazuharu Miyagi 記)

神の島とも称される久高島をはじめとして八重山や渡名喜島、粟国島、奄美大島などで行われている祭祀の写真集。単なる記録にとどまらず、詳細な儀礼記録や現場の雰囲気伝える民俗学としての見地からみても記録価値が高い。その上、70年代に撮影されたもので、今となっては見ることできかない貴重な記録ともなっている。比嘉康雄(1938年~2000年)が生涯をかけて撮影した写真の数々は、臨場感を持って、私たちに祭祀とは何かを語り掛けてくる。

本书是一部关于祭祀活动的照片集，主要收录了素有“神岛”之称的久高岛、八重山、渡名喜岛、粟国岛、奄美大岛等岛上举行的祭祀活动。书中内容不仅仅止于记录，详细的仪式过程记录和如临现场的氛围感受，从民俗学的角度来看也具有颇高的价值。而且，照片都是70年代拍摄的，如今也已是难得一见的珍贵记录。比嘉康雄(1938-2000年)毕生拍摄的照片，让人有身临其境之感，向我们讲述何为祭祀。

신의 섬이라 불리우는 쿠다카지마을 시작으로 야에야마, 토니키지마, 아구니지마, 아마미오오시마 등에서 이루어진 제사의 사진집이다. 단순한 기록에 끝나지 않고, 상세한 예례기록과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며, 민속학의 견지에서 보아도 기록 가치가 높다. 게다가 70년대에 촬영한 것으로, 지금에 와서는 볼 수도 없는 중요한 기록이 되었다. 히가 야스오(比嘉康雄(1938년~2000년))가 평생을 걸쳐 촬영한 사진들의 생생한 현장감은 우리들에게 제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 줄 것이다.



『入門 沖縄の薬草』

吉川敏男 (Toshio Yoshikawa) 著
発行：ニライ社 (宮城一春：Kazuharu Miyagi 記)

《入门 冲绳的草药》

吉川敏男 (Toshio Yoshikawa) 著
发行：Nirai社 (宮城一春：Kazuharu Miyagi 注记)

『입문 오키나와의 약초』

요시카와 도시오 (Toshio Yoshikawa) 저
발행:Nirai사 (미야기 카즈하루:Kazuharu Miyagi 記)

沖縄は薬草の宝庫ともいわれる。本書は、沖縄に自生するアキノワスレグサに始まり、リュウキュウヨモギまで60種類の薬用植物が取り上げられている。その全てがカラー写真で掲載されているので、野外でも見つけやすい編集となっている。また、効用や煎じ方、含有成分などを植物別に解説。さらには、その薬草を使った料理や薬用酒の作り方、飲み方なども掲載されており、実用書としての価値が高い書となっている。
(A5判 / 80ページ / 本体価格 1,500円)

冲绳也被称为药草的宝库。本书罗列了从冲绳自然生长的秋红萱草(黄花菜)到琉球艾草约60种药用植物，并悉数附有彩图，在野外发现时也易于辨别。此外，书中按各植物分类，对各药草的功效、煎煮方法、内含成分等进行解说。而且还记录了以药草为食材的料理以及药酒的制作方法、饮用方法，是一部价值颇高的实用书籍。
(A5 纸型 / 80 页 / 税前价格 1,500 日元)

오키나와는 약초의 보고라고도 불리운다. 본서는 오키나와에 자생하는 가을원추리를 비롯하여 류큐쪽에 이르기까지 60종류의 약용식물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야외에서도 찾기 쉽게 모든 사진을 올컬러로 편집하였다. 또한 효용과 달이는 법, 함유성분 등을 식물별로 해설하였다. 더 나아가 그 약초를 사용한 요리와 약용주를 만드는 법, 마시는 법 등도 게재되어 있어, 실용서로서의 가치가 높은 책이라 할 수 있다.
(A5 판 / 80 페이지 / 본서가격 1,500 엔)



『沖縄のわらべうた』

高江洲義寛 (Gikan Takaesu) 編著
発行：有限会社 沖縄文化社 (徳元大也：Hiruya Tokumoto 記)

《沖縄的童歌》

高江洲义宽 (Gikan Takaesu) 编辑著
发行：有限公司 沖縄文化社 (徳元大也：Hiruya Tokumoto 注记)

『오키나와의 와라베우타』

다카에스 기간 편저
발행：오키나와문화사 (도쿠모토 히로야 記)

沖縄各地のわらべうた 30 歌を五線譜と対訳、解説付で収録。いわゆるわらべうた以外にも、「ていんさぐぬ花」や「月ぬ美しゃ」なども「わらべうた周辺の歌」として収録。また、著者によるわらべうたの定義や分類なども掲載。わらべうたは童謡や子守唄とは異なり、「子どもたちがつくった子どもの歌」とであると解説する。さらに、イラストレーター漢那瑠美子氏による生き生きとした挿絵を掲載し、わらべうたの世界観を後世へと残すための一冊。(B6 判 / 96 ページ / 本体価格 951 円)

本书收录了 30 首冲绳各地的童歌，并附有五线谱、歌词对译以及解说。除这些的童歌以外，「凤仙花」和「月之美」等曲目也作为“童歌关联歌曲”一并收录在内。此外，书中还记载了作者对童歌的定义和分类。童歌与童谣或摇篮曲不同，作者对其的解释为“孩童们创作的歌曲”。而且，本书还附有插画家汉那瑠美子绘制的插图，栩栩如生，是一部为将童歌的世界观留传后世的精美作品。(B6 纸型 / 96 页 / 税前价格 951 日元)

오키나와 각지의 와라베우타 30곡을 오선지에 담아 해설한 것을 수록하였다. 와라베우타외에도 비슷한 테이산구누 하나ていんさぐぬ花, 츠키누미샤月ぬ美しゃ, 등도 와라베우타와 비슷한 곡이므로 수록하였다. 또한 저자에 의한 와라베우타의 정의와 분류 등도 게재하였다. 와라베우타는 동요나 자장가와는 다르며, ‘아이들이 만든 아이들의 노래’ 이렇게 해설하고 있다. 더욱이 본서는 일러스트가 칸나 루미코 씨에 의한 생생한 삽화를 게재하여 와라베우타의 세계관을 후세에 남기고자 하였다.(B6 판 / 96 페이지 / 본서가격 951 엔)



『大浦湾の生きものたち —琉球弧・生物多様性の重要地点、沖縄島大浦湾—』

ダイビングチームすなっくスナフキン 編
発行：南方新社 (向原祥隆：Yoshitaka Mukohara 記)

《大浦湾的生物 琉球群岛・生物多样性的的重要地点—冲绳岛大浦湾》

潜水隊snack snuffkin 编辑
发行：南方新社 (向原祥隆：Yoshitaka Mukohara 注记)

『오우라만의 생물들 - 류큐 호 · 생물다양성의 중요지점, 오키나와섬 오우라만 -』

다이빙팀 스넥 [스나후킨] 편
발행：미나카타신사 (무코하라 요시타카 記)

琉球弧の生物多様性は、世界的に見てもその豊かさが評価されている。中でも、沖縄島の辺野古の北に広がる大浦湾は、生物多様性の最重要地点である。新たな米軍基地建設による埋め立ては、この生きものたちの楽園に壊滅的な打撃を与える。日本生態学会 (会員 4000 人) をはじめ 19 学会は、連名で 2014 年 11 月、防衛大臣に対し、基地建設を見直すよう、要望書を提出した。本書は、大浦湾の生きもの 655 種を 850 枚の写真で紹介する。また、日本の生態学者たちの魂の叫びともいえる 19 学会要望書も収録する。

琉球群岛生物的多样性和丰富性，即使是在世界范围内也是受到较高的评价。其中，北至冲绳岛边野古的大浦湾，是有生物多样性的最重要地点。由于新美军基地建设的需要，填海之举给生物的乐园带来了毁灭性的打击。以日本生态学会 (会员 4000 人) 为主的 19 个学会，于 2014 年 11 月联名上书防卫大臣，要求重新评估基地建设。本书用 850 张照片介绍了 655 种栖息于大浦湾的生物，并收录了堪称是“日本生态学者灵魂的呐喊”的 19 个学会的联名请求书。

류큐 호의 생물의 다양성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그 풍부함을 높게 평가 받는다. 그 중에서도 오키나와섬의 헤노코 북쪽에 펼쳐지는 오우라만은 생물의 다양성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새로운 미군기지건설에 의해 매립이 되면 이 생물들의 낙원은 파괴가 될 것이다. 일본생태학회 (전 4000명) 을 비롯하여 19 학회는 성명 발표를 통해 2014년 11월, 방위대신에게 기지건설을 재검토하도록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본서는 오우라만의 생물 655종을 850장의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또한 일본의 생태학자들의 혼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는 19 학회 요청서도 수록하고 있다.



『フィールドガイド 沖縄の生きものたち』

沖縄生物教育研究会 編
発行：新星出版（村山望：Nozomi Murayama 記）

《野外指南 沖縄的生物》

沖縄生物教育研究会 編輯
発行：新星出版（村山望：Nozomi Murayama 注記）

『필드가이드 오키나와의 생물들』

오키나와생물교육연구회 편
발행: 신성출판 (무라야마 노조미 記)

海岸から山地の森林まで、沖縄県内のさまざまなフィールドで見られる主な動植物 1000 種をコンパクトなハンディサイズに詰め込んだポケット図鑑です。他書であまり紹介されていない「沖縄のキノコ類」も掲載しています。図鑑部分以外にも、巻頭には「沖縄の自然環境の特性」や、固有な生物が多い理由である。「陸の生物相の成り立ち」などの解説も掲載しました。エコツアーや自然観察会のお供にも最適な、沖縄の自然観察入門書の決定版です。(B6 判変形 / 288 ページ / 本体価格 2,000 円)

本书是一部设计轻巧便捷的袖珍型图鉴，收录了沖縄县内从海岸到山地森林的各种野外环境随处可见的 1000 种主要动植物。书中不仅记载了其他书籍鲜有介绍的“沖縄菌类”，而且图鉴部分之外，卷首部分还介绍了“沖縄自然环境的特性”以及固有生物多样性的原因。同时，书中还记载了“陆地生物区系的成立”等相关解说。本书是沖縄自然观察入门书的最终版，非常适合参加生态旅游也自然观察会时随身携带。(H182*W120mm 纸型 / 288 頁 / 税前价格 2,000 日元)

해안에서 산지의 삼림에 이르기까지 오키나와현내의 다양한 필드에서 볼 수 있는 주 동식물 1000종을 컴팩트한 핸드북 사이즈로 압축한 포켓도감입니다. 다른 책에서는 많이 소개가 되지 않는 ‘오키나와의 버섯 종류’도 게재하였습니다. 도감부분 이외에도 권두에는 ‘오키나와의 자연환경의 특성’과 고유의 생물의 많은 이유인 ‘육지의 생물상의 구성’ 등의 해설도 게재하였습니다. 본서는 친환경투어와 자연관찰투어에도 꼭 필요한 오키나와 자연관찰입문서의 결정판입니다.(B6 판 변형 / 288 페이지 / 본서가격 2,000 엔)



『琉球列島の自然講座』

琉球大学理学部「琉球列島の自然講座」編集委員会 編
発行：ボーダーインク（新城和博：Kazuhiro Shinjo 記）

『琉球列島の自然講座』

琉球大学理学部「琉球列島の自然講座」編集委員会編輯
発行：Borderink（新城和博：Kazuhiro Shinjo 注記）

『류큐열도의 자연강좌』

류큐대학 이학부 「류큐열도의 자연강좌」 편집 위원회 편
발행: 보더잉크 (신조 가즈히로 記)

ユニークで貴重な琉球列島の自然について日々研究を進めている琉球大学理学部。本書は、その自然研究の面白さを、第一線で活躍する、琉球大学の研究者たちが、わかりやすくまとめたものです。琉球の自然全体を知ることのできる、学生から一般の読者までを想定した入門編。オールカラーで沖縄の自然の成り立ちが理解できます。「第1章 サンゴ礁の現在・未来・過去」。「第2章 琉球列島の生きものたち」。「第3章 豊かな生物相を育む島と環境」。海を眺め空を見上げ島々を散策しよう。(四六判 / 207 ページ / 本体価格 1,800 円)

琉球大学理学部每天都夜以继日地推进琉球群岛上独特且珍贵的自然生态研究。本书是活跃于第一线的琉球大学研究者们，把研究自然的乐趣用浅显易懂的语言汇集而成的一部力作。通过阅读此书，读者能够全面地了解琉球的自然，是专门为学生及普通读者设定的入门书。本书全彩印刷，可以使读者了解沖縄的自然环境结构。第1章 珊瑚礁的现在、未来和过去，第2章 琉球列岛的生物，第3章 孕育着丰富生物群种的岛屿和环境。让我们一起眺望大海，仰望天空，在沖縄的各个岛屿上尽情漫步吧。(H188*W130mm 纸型 / 207 頁 / 税前价格 1,800 日元)

유니크하고 귀중한 류큐열도의 자연에 관해서 매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류큐대학 이학부입니다. 본서는 그 자연연구의 즐거움을 위해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류큐대학의 연구자들이 알기쉽게 정리한 책입니다. 류큐의 자연 전체를 알 수 있으며, 학생부터 일반 독자까지를 예상하고 만든 입문서입니다. 올컬로사진으로 오키나와의 자연의 구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1장 산호초의 현재, 미래, 과거’, ‘제2장 류큐열도의 생물들’, ‘제3장 풍부한 생물상을 기르는 섬과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다와 하늘을 보며 류큐열도의 섬들을 돌아봅시다.(사육판 / 207 페이지 / 본서가격 1,800 엔)



『琉球列島のチョウたち』

大城安弘 (Yasuhiro Oshiro) 著
発行：鳴き虫会 (宮城一春：Kazuharu Miyagi 記)

《琉球群島の蝴蝶》

大城安弘 (Yasuhiro Oshiro) 著
発行：鳴虫会 (宮城一春：Kazuharu Miyagi 記)

『류큐 열도의 나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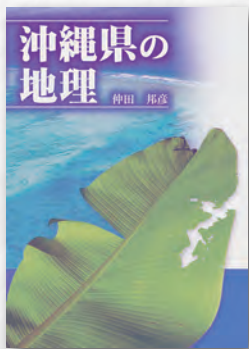
오시로 야스히로 (Yasuhiro Oshiro) 著
발행：나키무시회 (미야기 카즈하루：Kazuharu Miyagi 記)

琉球列島には数多くの蝶たちが生息している。しかし、近年の自然破壊によって、蝶たちの生息域が狭められてきているのも事実。本書は、琉球列島に生息する蝶の中から、20種類の蝶を取り上げ、形態や生態だけでなく、卵から孵化し、幼虫から蛹、羽化して成虫になるまでを丹念に生態写真で描いている。街中でもよく見られるモンシロチョウから、天然記念物のフタオチョウやコノハチョウなどの珍しい蝶まで幅広く掲載されているのも嬉しい一冊である。
(A5判 / 180ページ / 本体価格 2,300円)

琉球群岛上生息着许多蝴蝶。但是，由于近年来自然环境的破坏，导致了蝴蝶的栖息地范围也变得越来越小。本书从生息在琉球群岛上的各类蝴蝶中选取20种，不仅对它们的形态和生态，甚至它们从孵化到幼虫、结蛹、羽化成蝶的全过程，都以生态照片的方式进行细致的描述。书中收录的蝴蝶种类繁多，从路边常见的菜粉蝶，到被列为保护动物的双尾蝴蝶和木叶蝶等珍贵的蝴蝶，一定让你爱不释手。
(A5 纸型 / 180 页 / 税前价格 2,300 日元)

류큐열도에는 수 많은 나비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자연파괴에 의해 나비들의 서식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본서는 류큐열도에 서식하는 나비 중 20종류의 나비를 주목하여, 형태와 생태뿐만 아니라 알에서 부화하여 유충에서 번데기로, 그리고 우화하여 성충이 되는 생태과정을 면밀히 촬영하여 사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배추흰나비부터 천연기념물인 후타오초와 코노하초 등의 귀한 종까지 폭넓게 게재한 책입니다.
(A5 판 / 180 페이지 / 본서가격 2,300 엔)

《地理》 《地理》 《지리》



『沖縄県の地理』

仲田邦彦 (Kunihiko Nakada) 著
発行：編集工房 東洋企画 (仲田邦彦 記)

《冲绳县的地理》

仲田邦彦 (Kunihiko Nakada) 著
発行：编辑工作室东洋企划 (仲田邦彦 记)

『오кина와현의 지리』

나카다 구니히코 저
발행：편집공방 동양기획 (나카다 구니히코 記)

誰もが手軽に読めるサイズと、ある程度の内容を持ち合わせた学習書の必要性を感じ、『日本地誌第21巻大分県・宮崎県・鹿児島県・沖縄県』（1975年）とほぼ同等の内容でまとめた。歴史的な変遷も踏まえて現在まで結びつけた記述にしたこと、地誌では全市町村について扱ったこと、写真や図表なども多数取り入れて分かりやすくしたこと「地名」、「風水」を扱ったことが本書の特色といえる。地理好きな方が一人でも多く増えることを願っている。
(B5判 / 226ページ / 本体価格 1,143円)

作者认为，出版一册易于翻阅且具一定内容，又可随身携带的学习类书籍很有必要。因此编辑了一部与《日本地志第21卷大分县·宫崎县·鹿児島县·冲绳县》（1975年）几乎相同内容的地理书籍。全书的特色可归纳为四点：立足于历史性的变迁与现在相结合进行记述；地志部分中涉及全市町村；采用大量的照片和图表让整书变得更加浅显易懂；涉及地名和风水。希望此书的问世，可以让更多的人爱上地理。
(B5 纸型 / 226 页 / 税前价格 1,143 日元)

누구라도 손쉽게 읽을 수 있는 사이즈와 어느 정도 내용을 담고 있는 학습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일본지 지 제 12권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카고시마현 오кина와현' (1975년) 과 거의 같은 내용을 정리했다. 역사적인 변혁도 포함하여 그것을 현재와 연결하여 기술한 것으로, 지리지에서는 전 시읍면에 관해서 다룬 것, 사진과 도표 등도 다수 포함시켜 이해하기 쉽게 다룬 것, '지명', '풍수' 도 다룬 것이 본서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지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서를 기술하였다 한다.
(B5 판 / 226 페이지 / 본서가격 1,143 엔)



『心を伝える 奄美の伝統料理』

泉 和子 (Kazuko Izumi) 著
発行：南方新社 (向原祥隆：Yoshitaka Mukohara 記)

《传递心灵的奄美传统料理》

泉 和子 (Kazuko Izumi) 著
发行：南方新社 (向原祥隆：Yoshitaka Mukohara 注)

『마음을 전하는 아미미의 전통요리』

이즈미 가즈코 저
발행: 미나카타신사 (무코하라 요시타카 記)

世界自然遺産登録候補地として、注目を集める奄美。長寿世界一として名を馳せた泉重千代、本郷かまとを輩出した長寿の島でもある。本書は、長寿を支える「奄美の食」を、島在住の料理研究家が、行事の料理から日常の家庭料理、お菓子、調味料にいたるまで、長く伝承されてきた料理を集大成した。島ウリなどの伝統野菜、海藻、川ガニや川エビ、ヤギや塩豚、地魚の料理などなど、通して読めば、島人たちの元気の秘密が手に取るようにわかる。

作为世界自然遗产候选地广受瞩目的奄美岛，也是一个长寿之岛，作为世界最长寿之人声名远扬的泉重千代、本郷kamato均来自该岛。长期居住于岛上的美食研究者从传统节日菜肴到家常菜、点心、调味料等方面，对长寿秘诀的“奄美美食”进行介绍。本书是这些历史传承料理的集大成之作。奄美岛瓜等传统蔬菜、海藻、河蟹、河虾、山羊、以及腌肉、地方特色鱼料理等等，若通读本书，你便知道奄美岛民健康长寿的秘诀了。

아미미는 세계자연유산등록후보지로서 주목을 받았다. 세계에서 가장 장수한 것으로 유명한 이즈미 시게치요, 혼고 카마토를 배출한 장수의 섬이기도하다. 본서는 장수를 지탱하는 ‘아미미의 음식’을 섬에 살고 있는 요리연구가가 행사 요리부터 일상 가정요리, 과자, 조미료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요리를 집대성한 것이다. 시마우리(섬오이) 등의 전통채소, 해조류, 민물게, 민물새우, 염소와 시오부터(돼지), 생선요리 등, 본서를 정독하면 섬사람들의 건강의 비밀이 훤히 다 보일 것이다.



『王都首里見て歩き』～御城と全19町ガイド&マップ

古都首里探訪会 編・著
発行：新星出版株式会社 (石田奈月：Natsuki Ishida 記)

《游览王都首里城》——首里城与19町的旅游导览图

古都首里探訪会 编著
发行：新星出版株式会社 (石田奈月：Natsuki Ishida 記)

『왕도슈리 산책』～성과 전 19 마을 가이드 & 맵

고도슈리탐방회 편·저
발행: 신성출판주식회사 (이시다 나즈키 記)

琉球の王都・首里には、豊かな湧水がもたらす平和で静寂な佇まいがあった。城の東方(首里三箇)では泡盛、北方と西方は琉球和紙、南方は豆腐とモヤシが作られた。史跡や拝所を訪ね歩く人の姿は今なお絶えないが、古参の住人にもそれらの在処や由来はあまり知られていない。本書は2006年に首里公民館で開かれた市民講座「古都首里再発見」の修生生による古都首里探訪会が、150回もの踏査に基づいて史跡やスージグワー(路地)の解説、現在の地図を収録した充実の一冊。(A5判/244ページ/本体価格1,500円)

琉球王都首里，丰富泉水资源给人带来一种宁静、沉寂之感。古城之东盛产泡盛酒，北方与西方以制造琉球和纸闻名，南方则生产豆腐与豆芽。尽管现今前来参观史迹和祭祀圣地的游客络绎不绝，然而关于这些史迹原来地址的具体所在及其由来，即便是当地老人也不甚了解。2006年市民系列讲座“古都首里再发现”在首里公民馆举行。讲座结束后，参加讲座的人员自发组织了古都首里探訪会，对首里的史迹和巷道进行了150次的实地考察，并加以解说。本书收录了这些调查说明，并附现在的地图，内容非常充实。(A5 纸型/244 页/税前价格 1,500 日元)

류큐의 왕도, 슈리에는 풍족한湧수가 가져온 평화로 고요함이 깃들었다. 성의 동방에는 아와모리, 북방과 서방에는 류큐화지, 남방에는 두부와 콩나물이 만들어지고 재배되었다. 사적과 예배소를 찾아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으나, 고참인 주민들도 그것들의 출처와 유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본서는 2006년에 슈리공민관에서 열린 시민강좌 ‘고도슈리재발견’의 수료생에 의한 고도슈리탐방회가 150회에 걸친 조사를 바탕으로 사적과 골목길의 해설, 현재의 지도를 충실하게 수록한 책이다.(A5 판/244 페이지 / 본서가격 1,500 엔)



『よみがえるドゥナン 一写真が語る与那国の歴史』

米城 恵 (Megumi Yoneshiro) 著
発行：南山舎：Nanzansya (大森一也：Kazuya Oomori 記)

『复苏的与那国岛 照片讲述的与那国历史』

美城惠 (Megumi Yoneshiro) 著
发行：南山舎 (大森一也：Kazuya Oomori 记)

『되살아나는 두난 — 사진이 이야기하는 요나쿠니의 역사』

요네시로 메구미 저
발행: 난잔샤 Nanzansya (오모리 가즈야 記)

日本の最西端に位置し、台湾に最も近い島・与那国。島民は、1964年の東京オリンピックも町の電気店の店頭テレビで、台湾経由の放送で観たという。その与那国島の近現代史を写真とともに概観できるコンパクトな一冊。独自の民俗・文化・歴史を伝える貴重な写真を読み解く形で、古琉球時代から戦後に至るまで、78の物語が時系列に綴られている。台湾のヒノキ材を使った民家の建築時の写真には、台湾の大工さんたちも写っており、国境の島における親密な交流も見てとれる。
(B6判 / 292ページ / 本体価格 1,900円)

与那国位于日本最西端，是距离台湾最近的岛屿。据说1964年岛民们在街上电器店的电视上收看的东京奥林匹克运动会，是通过台湾的信号转播。本书是一部可以结合照片概观与那国近现代历史的袖珍书。通过对那些反映出独特民俗、文化、历史的珍贵照片进行解读的形式，按照时间顺序汇集了从古琉球时代至战后的78个故事。使用台湾柏木建造的民宅，在建造时的照片上还可以看到台湾木匠的身影，位于国界岛屿之间的密切交流由此可见一斑。
(B6 纸型 / 292 页 / 税前价格 1,900 日元)

일본에 최남단에 위치하고 대만에 가장 가까운 섬이 요나쿠니이다. 요나쿠니의 사람들은 1964년에 열린 동경올림픽도 마을의 전파상의 티비로, 그것도 대만 경유의 방송으로 보았다고 한다. 그 요나쿠니섬의 근현대사를 사진과 함께 개관할 수 있는 컴팩트한 책이다. 독자적인 민속, 문화, 역사를 전하는 귀중한 사진을 알기 쉬운 형태로 옛 류큐시대부터 전후에 이르기 까지 78개의 이야기가 시대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대만의 노송나무를 사용한 민가의 건축시의 사진에는 대만의 목공들도 찍혀 있으며, 국경섬 특유의 친밀한 교류도 엿보인다.
(B6 판 / 292 페이지 / 본서가격 1,900 엔)



『八重山の台湾人』

松田良孝 (Yoshitaka Matsuda) 著
発行：南山舎：Nanzansya (大森一也：Kazuya Oomori 記)

『八重山島上の台湾人』

松田良孝 (Yoshitaka Matsuda) 著
发行：南山舎：Nanzansya (大森一也：Kazuya Oomori 注记)

『야에야마의 대만인』

마쓰다 요시타카 저
발행: 난잔샤 Nanzansya (오모리 가즈야 記)

日本の台湾植民地支配の始まりとその崩壊、そして、1972年沖縄の本土復帰=台日の国交断絶の節目を挟む激動の時代に生きた八重山の台湾人の物語。八重山諸島には戦前から多くの台湾人が移住し、水牛の導入やパイン生産等、農業発展の基盤を築き上げた。しかし、戦後は一転して外国人とされ日本国籍を失い、「台湾に帰れ」と差別的な扱いを受ける。国家や国境に翻弄された個々の生活史は、人の「存在」について根源的な問いを投げかける。第25回沖縄タイムス出版文化賞受賞。
(B6判 / 232ページ / 本体価格 1,800円)

本书讲述的是，日本殖民统治台湾之初和殖民统治崩溃之时以及1972年冲绳复归日本本土，即台日断交之时的动荡年代里生活于八重山岛上的台湾人故事。自战前起，就有许多台湾人移居八重山群岛，他们引进水牛以及凤梨的生产等，为该地区农业的发展奠定了基础。但是，战后他们失去日本国籍，摇身一变成了外国人，遭受到被勒令“滚回台湾”的不公平待遇。书中所描述的被国家与国界摆弄命运的众多个人生活史，提出了人类“存在”这一根源性问题。荣获第25届冲绳时报社出版文化奖。
(B6 纸型 / 232 页 / 税前价格 1,800 日元)

일본의 대만식민지 지배의 시작과 그 붕괴, 그리고 1972년 오키나와의 본토복귀=대일의 국교단절의 사이에서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야에야마의 대만인들의 이야기이다. 야에야마제도에는 전쟁전부터 많은 대만인들이 이주하였고 물소의 도입과 파인애플 생산 등 농업전개의 기반을 쌓아올렸다. 그러나 전후에는 그것이 급변하여 외국인이 되어 일본국적을 잃고, '대만으로 꺼져라' 이런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된다. 국가와 국경에 번롱당한 개개인의 생활사는 사람의 존재에 관한 근원적인 물음을 던진다. 제 25회 오키나와타임즈출판문화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B6 판 / 232 페이지 / 본서가격 1,800 엔)



『石垣島で台湾を歩く—もうひとつの沖縄ガイド』

国吉美智子 (Michiko Kuniyoshi) · 野入直美 (Naomi Noiri) · 松田ヒロ子 (Hiroko Matsuda) · 松田良孝 (Yoshitaka Matsuda) · 水田憲志 (Kenji Mizuta) 編著
発行: 沖縄タイムス社 (友利仁: Hitoshi Tomori 記)

《走访石垣岛感受台湾——又一个冲绳旅游指南》

国吉美智子 (Michiko Kuniyoshi) · 野入直美 (Naomi Noiri) · 松田ヒロ子 (Hiroko Matsuda) · 松田良孝 (Yoshitaka Matsuda) · 水田 志 (Kenji Mizuta) 著
発行: 沖縄时报社 (友利仁: Hitoshi Tomori 注記)

『이시가키섬에서 대만을 걷다—또 하나의 오키나와 가이드』

쿠니요시 미치코 · 노이리 나오미 · 마쓰다 히로코 · 마쓰다 요시타카 · 미즈타 겐지 편저
발행: 오키나와타임즈사 (도모리 히토시 記)

石垣島から台湾まで236キロ、与那国島からなら111キロ。パイナップル産業や土地公祭など、石垣島に残る台湾文化の痕跡を訪ね歩き、両地域に長い交流があることを知る事ができる『台湾』をテーマにした石垣島の歩き方や、「八重山に生きる台湾系移民」「植民地台湾へ渡った沖縄の人びと」などの証言、さらに資料などでつづったユニークな石垣島ガイドブック。本書を手に取り歩いていくと、より理解が深まるよう構成されている。オールカラー版。
(A5判 / 141 ページ / 本体価格 1,500 円)

台湾距离石垣岛236公里，距离与那国岛111公里。本书是一部独特的石垣岛导览手册，“以《台湾》为主题的石垣岛漫游指南”让你在走访了凤梨产业以及土地公祭等留存于石垣岛的台湾文化遗迹之后，便了解两地之间悠久的交流历史。此外，还汇集收录了“生活在八重山岛上的台湾移民”、“移居殖民地台湾的冲绳人”等口述证言以及相关资料。游览时随手带上本书，你将进一步加深对石垣岛的理解。全书彩色印刷。

(A5 纸型 / 141 页 / 税前价格 1,500 日元)

이시가키섬에서 대만까지 236킬로미터, 요나쿠니섬에서는 111킬로미터가 걸린다. 파인애플생산과 토지공제등, 이시가키섬에 남아 있는 대만문화의 흔적을 찾아 걸으며 양지역에 오랫동안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만’을 테마로 한 이시가키섬 트래킹가이드와 야에야마섬에 남아 있는 ‘대만 게이민자’, ‘식민지대만에 건너간 오키나와의 사람들’ 등의 증언과 더 나아가 자료 등으로 써내려간 유니크한 이시가키섬 가이드북이다. 본서를 손에 들고 걸으면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울컬러판.
(A5 판 / 141 페이지 / 본서가격 1,500 엔)

《空手》 《空手道》 《공수도》



『琉球拳法 唐手』普及版(復刻2006年、初版大正11年)

富名腰義珍 (Gichin Funakoshi) 著 · 宮城篤正 (Tokumasa Miyagi) 解説
発行: 榕樹 (Yojyu) 書林 (武石和実: Kazumi Takeish 記)

《琉球拳法 唐手》普及本(再版2006年、初版大正11年)

富名腰義珍 (Gichin Funakoshi) 著 · 宮城篤正 (Tokumasa Miyagi) 校注
発行: 榕樹 (Yojyu) 書林 (武石和実: Kazumi Takeish 注記)

『류큐권법 가라데』 보급판 (복각 2006년, 초판 다이쇼 11년)

후나고시 기친 저 · 미야기 도쿠마사 해설
발행: 응수서림 (다케이시 가즈미 記)

空手が沖縄の秘密の武術としてまだ世に知られていなかった頃、最初に大衆に空手を知らしめた歴史的記念の書であり、関東大震災の為に刊行まもなくそのほとんどが失われた為、残存部数極稀本の復刻。本邦初の空手本。空手の型絵は富名腰義珍(戦後は船越義珍)の姿で描かれ、沖縄出身の画家山城正綱による。内容は、唐手とは何ぞや、唐手の価値、空手の練習と教授法、唐手の組織、基本及び型(15の型)、附録よりなり、その後の松濤館空手の基礎を作ることとなった。
(B6判 / 334 ページ / 本体価格 2,500 円)

本书是一部具有历史性纪念的作品，因为在空手道作为冲绳的秘密武术仍鲜为世人所知时，它最先向普通民众介绍了空手道。但是，由于关东大地震，该书出版后不久便散佚殆尽。本书是在仅存的数部稀残本的基础上再版而成，是日本最早的空手道书籍。空手道的拳法图是冲绳籍画家山城正纲以富名腰义珍(战后改名为船越义珍)的手势身姿为原型所绘。全书由“何为空手道”、“空手道的价值”、“空手道的练习与教法”、“空手道的组织”、“基本要领以及示范动作(15个动作)”、“附录”等内容构成。之后的松濤馆空手道即是在此基础上形成的。
(B6 纸型 / 334 页 / 税前价格 2,500 日元)

공수(가라데)가 오키나와의 비밀 무술로서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적에, 처음으로 대중앞에 공수를 선보인 역사적 기념서이며, 관동대지진으로 인해 간행본 대부분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정말 귀중한 복각본이다. 일본의 첫 공수도책이다. 공수의 그림은 후나고시 기친의 모습으로 그려졌고, 오키나와 출신 화가 야마시로 마사츠나가 담당하였다. 내용은 공수란 무엇인가, 공수의 가치, 공수의 연습과 교수법, 공수의 조직, 기본 및 형(15의 형),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후 쇼토칸류의 기초를 닦게 되었다.
(B6 판 / 334 페이지 / 본서가격 2,500 엔)



『新編 沖縄の文学』

高教組教育資料センター 著
発行：合資会社 沖縄時事出版（洲鎌さくら：Sakura Sugama 記）

《新編 沖縄文学》

高中教师联合会教育资料中心 著
发行：合资公司 沖縄時事出版（洲鎌Sakura：Sakura Sugama 注记）

『신편 오키나와의 문학』

교시조교육자료센터 저
발행: 합자회사 오키나와시사 (Okinawajiji) 출판 (스가마 사쿠라 記)

琉球・沖縄の人々は文学を生活の中に息づかせてきた。それゆえ文学を通して、琉球・沖縄が歩んできた歴史と文化をたどることができる。それが、古の琉球の人々が神へ捧げた「Omorosoushi」、古くから語り継がれてきた神話や伝説、楽劇「Kumiodori」、大衆演劇として発達した「沖縄芝居」である。本書は、沖縄の文学を語るうえで欠かせない代表的な作品群を、その時代背景とともに解説している。難読句や方言には細かい注釈や振り仮名が付けられ、解説も丁寧で分かりやすい。

(B5判 / 176ページ / 本体価格 1,429円)

琉球・沖縄人将文学融合于生活之中。因此通过文学，可以探寻琉球・沖縄的历史和文化。比如古代琉球人敬献神明的“Omorosoushi（神歌草纸）”、从古代口口相传至今的神话传说、音乐剧“Kumiodori（组舞）”以及作为大众戏剧发展起来的“沖縄戏剧”。本书结合时代背景，解读了沖縄文学中不可或缺的代表性作品，并在难懂词句和方言处加了解释和假名读音，解说内容详细，通俗易懂。

(B5 纸型 / 176 页 / 税前价格 1,429 日元)

류큐, 오키나와의 사람들의 생활의 중심에는 언제나 문학이 살아숨쉬고 있었다. 그 때문에 문학을 통해서 류큐, 오키나와가 걸어온 역사와 문화를 되새겨 볼 수 있다. 그것이 옛 류큐 사람들이 신에게 바친 Omorosoushi,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신화아 전설, 악극 Kumiodori, 대중연극으로서 발달한 오키나와연극이다. 본서는 오키나와의 문학을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작품군을 그 시대배경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난독어와 방언에는 상세한 주석과 읽는법의 설명이 있고, 해설도 정중하고 알기 쉽게 되어있다.

(B5 판 / 176 페이지 / 본서가격 1,429 엔)



『子どもたちのオキナワ 1955 - 1965』

山田實 (Minoru Yamada) 著
発行：池宮 (Ikemiya) 商会 (宮城一春：Kazuharu Miyagi 記)

『孩子们成长的沖縄社会 1955-1965』

山田实 (Minoru Yamada) 著
发行：池宮 (Ikemiya) 商会 (宮城一春：Kazuharu Miyagi 注记)

『어린이들의 오키나와 1955-1965』

야마다 미노루 (Minoru Yamada) 저
발행: 이케미야 (Ikemiya) 상회 (미야기 카즈하루:Kazuharu Miyagi 記)

1950年代から60年代、日本は高度経済成長期を迎えようとしていた。そのときの沖縄の状況はどうだったのか。いまだ戦争の陰を引きずり、どのような沖縄にしていくのか模索していた。そんな中でも、子どもたちは明るい。苦しい生活であっても、友だち同士、仲良く遊び、家の手伝いをしながら、明るい未来を想像していた。そのような子どもたちの姿を山田實は優しい眼差しで撮影している。苦しい環境にあっても健気に生きる子どもたちの姿を映しとった写真集である。

(B5判 / 84ページ / 本体価格 953円)

20世纪50年代至60年代，是日本马上就要迎来经济高速增长的时期。而此时的沖縄又是何种状况呢？战争的阴影仍未挥去，依然在探索着该何去何从。即使是在如此的社会环境中，孩子们依然开朗乐观。尽管生活艰苦，孩子们依然与同伴快乐地玩耍，一边帮衬家务，一边憧憬未来。山田实用柔和的摄影眼光留下了孩子们天真的笑容和可爱的身姿。这本摄影集反映了当时的孩子们尽管身处艰苦环境，但却坚毅成长的顽强精神。

(B5 纸型 / 84 页 / 税前价格 953 日元)

1950년대부터 60년대에 일본은 고도 경제성장기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당시의 오키나와의 상황은, 아직도 전쟁의 그늘 속에서 어떻게 오키나와를 발전시킬지 탐색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명량하였다. 고통스러운 나날일지라도 친구와 사이 좋게 놀며 집안일을 돕고, 밝은 미래를 상상하였다. 그와 같은 아이들의 모습을 야마다 미노루는 상냥한 시선으로 촬영하였다. 힘든 환경속에서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집이다.

(B5 판 / 84 페이지 / 본서가격 953 엔)



『写真記録 沖縄戦後史 1945 - 1998』

沖縄タイムス社 編
発行：沖縄タイムス社（友利仁：Hitoshi Tomori 記）

『撮影集 沖縄戦後史 1945-1998』

沖縄时报社 编辑
发行：沖縄时报社（友利仁：Hitoshi Tomori 注记）

『사진기록 오키나와 전후사 1945-1998』

오키나와 타임즈사 편
발행: 오키나와타임즈사 (도모리 히토시 記)

1944年の「10・10空襲」を前史とする沖縄戦、戦後の米軍統治、高まる民衆運動による「祖国復帰」、押し寄せる本土化、見つめ直された沖縄の独自性一。こうした流れを経た沖縄の戦後史を豊富な報道写真によって記録する。1987年に刊行した前書に大幅な改訂を加え、88年以後の動きを増補した。写真の選択にあたっては、生活史的・風俗的なものを重視し、当時の沖縄人の息遣いが伝わるようにしている。歴史理解を深める資料として「戦後史年表 1945-1998」「写真索引」も付した。(A4判変型 / 304 ページ / 本体価格 4,000 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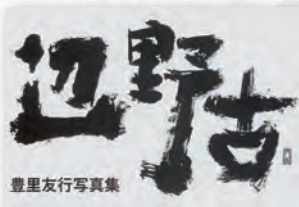
以1944年的“双十空袭”为开端的沖縄战役、战后美军的统治、高涨的民众运动推动下的“祖国复归”、席卷而来的本土化、沖縄自主性的重新认识。本书运用大量的新闻照片记录了沖縄战后波澜壮阔的历史，在1987年版的内容上进行的大幅度的修改，并增补了1988年以后的相关动态。在照片的选择上，注重生活性和风俗性的东西，以更好地向世人传递当时沖縄人的生活气息。

为加深读者对历史的理解，本书还附录了“战后历史年表1945-1998”和“照片索引”。(美国标准信笺纸型 / 304 页 / 税前价格 4,000 日元)

1944년의 ‘10·10공습’을 전제로 하는 오키나와전, 전후의 미군통치, 달아오르는 민중운동에 의한 ‘조국귀국’, 밀려오는 본토화, 다시보게된 오키나와의 독자성. 이러한 흐름을 거쳐 오키나와의 전후사를 풍부한 보도사진에 의해 기록하였다. 1987년에 발행한 전서에 대폭적인 개정을 덧붙여, 88년 이후의 움직임을 보충하였다. 사진 선택에 있어서는 생활사적, 풍속적인 것을 중시하였고, 당시의 오키나와인의 숨결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역사이해의 도움을 주는 자료로서 ‘전후사년표1945-1998’와 ‘사진색인’을 추가하였다. (A4 판 변형 / 304 페이지 / 본서가격 4,000 엔)

『辺野古 豊里友行写真集』

豊里友行 (Tomoyuki Tyozato) 著
発行：沖縄書房、発売元：榕樹 (Yoju) 書林 (武石和実：Kazumi Takeish 記)



《辺野古 丰里友行照片集》

丰里友行 (Tomoyuki Tyozato) 著
发行：沖縄书房，总经销：榕树 (Yoju) 书林 (武石和实：Kazumi Takeish 注记)

『헤노코 도요사토 도모유키 사진집』

도요사토 도모유키 저
발행: 오키나와서방, 발매원: 용수서림 (다케이시 가즈미 記)

日々緊迫の度を強めている辺野古新基地建設をめぐる政府と沖縄民衆の闘いを、現場に密着して記録した生々しいドキュメント。著者は一貫して闘う側に身を置いてこの間年次的に写真集を上梓しており、本書はその第2弾。著者の写真を武器とした活動は、各地の公民館等での小写真展を開催することと結びついて展開されており、闘うカメラマンとして高い評価を受けている。沖縄の新世代の顔となっている。(B6 横版 / 156 ページ / 本体価格 1,000 円)

政府和沖縄民众间围绕辺野古新基地建设的矛盾斗争日趋白热化。本书详细地记录矛盾斗争现场情况，是一部鲜明、生动的一手文献。作者一贯将自己置身于反抗一方的立场，并逐年编辑出版照片集。本书是系列照片集的第二辑。配合在各地公民馆等举办的小型照片展，以作者的照片为武器的活动相继展开，作者作为战斗摄影师受到极高的评价，成为了沖縄新生代的代表人物。(B6 纸型横向 / 156 页 / 税前价格 1,000 日元)

나날이 압박의 강도를 더해가는 헤노코신기지건설을 두고 정부와 오키나와민중의 대립을 현장에서 밀착하여 기록한 생생한 기록물이다. 저자는 민중의 편에서서 해마다 사진집을 출판하였고, 본서는 제 2탄이다. 저자의 사진을 무기로 한 활동은 각지의 공민관에서 소사진전을 개최하는 것과 연결하여 전개되었으며, 투쟁하는 카메라맨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오키나와의 신세대 얼굴이라 할 수 있다. (B6 横版 / 156 페이지 / 본서가격 1,000 엔)

アジアの人々へ読んでもらいたい『沖縄県産本50冊』

2016年11月14日 発行

編 著 東アジア出版人会議沖縄会議実行委員会

編著者代表 高良倉吉

中国語訳 陳碩炫（中国福建師範大学閩台区域研究中心副研究員）

李源（中国延辺大学大学院修士課程二年生）

韓国語訳 イ・ソンウク

（翻訳・通訳フリーランサー）prideugi87@gmail.com

発 行 合資会社 沖縄時事出版

〒900-0025 沖縄県那覇市壺川1-3-10

電話 098-854-1622

本書は「東アジア地域への沖縄本による情報発信及び、出版分野を媒体とした文化交流」事業の一環として、沖縄県及び（公財）沖縄県文化振興会の支援を受けて発行・配布されるものです。

为亚洲读者力荐的“50部冲绳县内出版书籍”

2016年11月14日出版发行

编 著：东亚出版业者会议冲绳会议执行委员会

汉语翻译：陈硕炫（福建师范大学闽台区域研究中心副研究員）

李源（延辺大学在读硕士研究生）

韩语翻译：李成旭（笔译口译工作者）

出版发行：合資会社 沖縄時事出版社（prideugi87@gmail.com）

900-0025 冲绳县那覇市壺川1-3-10

아시아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오키나와책 50권

2016년 11월 14일 발행

편 著：동아시아출판인회의 오키나와회의실행위원회

편저자대표：타카라 쿠라요시

중 국 어 역：陳碩炫（福建師範大学閩台区域研究中心副研究員）

李源（延辺大学大学院修士課程院生）

한 국 어 역：이성욱（통역·번역 프리랜서）

Prideugi87@gmail.com

발 行：합자회사 오키나와시사출판版

우900-0025 冲 那覇市壺川1-3-10

전화 098-854-1622

본서는 ‘동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오키나와의 책을 통한 정보 발신 및, 출판분야를 매개체로 한 문화교류’ 사업의 일환으로서 오키나와현 및 오키나와현 문화진흥회의 지원을 받아 발행, 배포한 것입니다.

伝統製法を生かしたこだわりの創作黒糖

琉球黒糖株式会社

沖縄県糸満市西崎町 4 丁目 16-19

電話 098-992-8300

FAX 098-992-8301



祝 東アジア出版人会議
沖縄会議

やすらぎの酒 神村の泡盛

創業明治 15 年 有限会社神村酒造
沖縄県うるま市石川嘉手苅 570 番地
TEL098-964-7628
<http://kamimura-shuzo.co.jp>

※お酒は二十歳になってから※お酒は適量を※妊娠中授乳期の飲酒はお控えください